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 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훈데르트바서의 회화 속에 표현된 조형적  
특성 분석을 통한 네일 디자인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뷰티예술학과

뷰티색채학전공

조 선아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신인숙

훈데르트바서의 회화 속에 표현된 조형적  
특성 분석을 통한 네일 디자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Nail Designs Based on the Design Characteristics  
Expressed in Hundertwasser

2013년 6월 일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뷰티예술학과

뷰티색채학전공

조선아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신인숙

훈데르트바서의 회화 속에 표현된 조형적  
특성 분석을 통한 네일 디자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Nail Designs Based on the Design Characteristics  
Expressed in Hundertwasser

위 논문을 예술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6월 일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뷰티예술학과  
뷰티색채학전공  
조선아

조선아의 예술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3년 6월 일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 국 문 초 록

훈데르트바서의 회화 속에 표현된 조형적 특성 분석을 통한  
네일 디자인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뷰티예술학과  
뷰티색채학전공  
조 선 아

네일아트가 대중화 단계를 거쳐 뷰티 트렌드를 이끄는 시장으로 점차 확장되고 있는 가운데 해를 거듭할수록 매니큐어는 개인의 개성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유행을 만들고, 차별화된 디자인의 개발로 ‘기술을 받는 행위’에서 ‘문화를 즐기는 행위’로 변하고 있다.

단순히 손만 관리하고 폴리쉬만 바르던 매니큐어는 진보된 재료의 사용과 더불어 본인만의 개성을 살려 더욱 더 아름답고 화려하게 돋보이기를 원하는 21C 여성들의 뗄 수 없는 생활이 되어가고 있고 아름다움을 구축하는 서비스인 만큼 디자인이 더욱 중요시 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기술적인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

2013년의 대표적인 트랜드 컬러라 할 수 있는 원색과 형광색이 패션산업에 전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요즘, 화려한 원색과 조화롭게 무채색을 사용한 훈데르트바서의 회화작품은 네일아트 디자인의 예술적 효용가치를 극대화하며 개성있고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네일아트 디자인을 제안하기에 적합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훈데르트바서 회화의 형성 배경과 작품세계, 그리고 선과 면을 중심으로 한 조형적 특성 등을 문헌 연구를 통해 분석하고, 훈데르트바서 회화에 나타나는 색채를 NCS를 색채시스템을 적용하여 시각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또한 네일아트의 디자인 개념 및 표현기법에 관한 이론적 고찰과 화려하고 강렬한 색채와 그의 작품 속에서 보여지는 다양한 문양과 여러 가지 종류의 소재와 기법을 분석하여 훈데르트바서 회화 작품에 적합한 네일아트 재료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네일아트의 재료는 UV 젤, 아크릴 립, 믹스미디어로, 분석된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네일아트 작품 12점을 제작하였다. 작품의 구성은 UV 젤 아트 4점, 아크릴 립 아트 4점, 믹스미디어 4점으로 제작하였고 훈데르트바서의 회화에 등장하는 장식적인 선과 형태, 색상을 모티브로 총 12점의 작품을 제작하여, 훈데르크바서 회화의 원색의 화려한 색채이미지와 유기적이고 기하학적인 조형미를 살린 개성 있는 네일아트 작품을 완성할 수 있었다.

그 결과 훈데르트바서의 회화 작품 중 나선형과 기하학적인 문양은 네일 디자인을 하는데 매우 적합함을 알 수 있었고, 훈데르트바서 회화 작품의 화려한 색채와 장식적인 문양들을 엠보기법과 스톤 등의 네일 재료를 사용하여 네일아트 디자인의 다양한 표현을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기계적이고 인위적이지 않은 선으로 표현된 훈데르트바서의 작품은 젤과 아크릴을 잘 다루지 못하는 네일리스트라도, 큰 부담 없이 그려 내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훈데르트바서 회화작품의 색채는 전체적으로는 화려하고 원색적이지만 그 사이에서도 명도와 채도가 높게 나타나는 색상과 비교적 낮게 나타나는 색상이 함께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무채색계열의 그레이와 블랙의 어두운 색상이 함께 사용되어 조형미를 극대화시키며 색상의 채도가 높은 색들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훈데르트바서 작품의 조형적 특성을 고찰 연구하고 NCS를 통한 색채분석 하였으며 화려한 색채와 장식적인 문양들을 적용한 총 12가지 네일 아트 디자인을 제작해 제안 하였다. 이것을 바탕으로 네일아트의 예술적 효용

가치를 극대화하고 색채와 기술을 요구하는 현시대의 네일아트 디자인이 ‘색(色)’을 연구하여 ‘색(色)’을 통해 응용되고 더 발전되기를 바라는 의도와 목적으로 시도하고자 한다.

【주요어】 훈데르트바서, NCS색체계, 매니큐어, UV 젤, 아크릴릭, 믹스미디어



# 목 차

제 1 장 서 론 .....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
제 2 장 훈데르트바서의 생애와 작품 세계 .....	4
제 1 절 훈데르트바서의 생애 .....	4
제 2 절 훈데르트바서의 시대적 배경 .....	7
제 3 절 훈데르트바서의 작품 세계 .....	1
제 3 장 훈데르트바서 작품의 조형적 특성 분석 .....	17
제 1 절 훈데르트바서 회화 작품의 연대별 특성 .....	17
제 2 절 훈데르트바서 회화 작품의 형태적 특성 .....	19
제 3 절 훈데르트바서 회화 작품의 색채적 특성 .....	24
1. 이미지스케일을 통한 색채적 특성 분석 .....	24
2. NCS를 통한 색채적 특성 분석 .....	26
제 4 장 훈데르트바서 작품의 조형적 특성 분석을 통한 작품 연구 및 네일 디자인 제안 .....	37
제 1 절 매니큐어에 관한 고찰 .....	37
1. 매니큐어의 정의 .....	37
2. 매니큐어의 유래 .....	37
제 2 절 네일아트 재료 설명 및 제작 의도 .....	40

1. 제작의도 .....	40
2. 재료설명 .....	41
가. UV GEL 네일 시스템 .....	41
나. 아크릴릭 네일(Acrylic Nail) .....	44
다. 믹스미디어(MixedMedia) .....	47
제 3 절 훈데르트바서의 작품 분석을 통한 네일 디자인 제안 .....	49
 제 5 장 결 론 .....	85
 【참고문헌】 .....	88
 ABSTRACT .....	91

## 【 표 목 차 】

[표 3-1] 클림트, 쉴레, 훈데르트바서의 대표적인 회화 작품 .....	16
[표 3-2] 훈데르트바서 회화작품의 연대별 특징 .....	18
[표 3-3] 선으로 표현된 형태 .....	22
[표 3-4] 면으로 표현된 형태 .....	22
[표 3-5] 훈데르트바서 회화작품의 NCS를 통한 색채분석① .....	29
[표 3-6] 훈데르트바서 회화작품의 NCS를 통한 색채분석② .....	30
[표 3-7] 훈데르트바서 회화작품의 NCS를 통한 색채분석③ .....	34
[표 4-1] 작품 ① 색채분석 .....	50
[표 4-2] 작품 ① 작품제안 .....	51
[표 4-3] 작품 ② 색채분석 .....	53
[표 4-4] 작품 ② 작품제안 .....	54
[표 4-5] 작품 ③ 색채분석 .....	56
[표 4-6] 작품 ③ 작품제안 .....	57
[표 4-7] 작품 ④ 색채분석 .....	59
[표 4-8] 작품 ④ 작품제안 .....	60
[표 4-9] 작품 ⑤ 색채분석 .....	62
[표 4-10] 작품 ⑤ 작품제안 .....	63
[표 4-11] 작품 ⑥ 색채분석 .....	65
[표 4-12] 작품 ⑥ 작품제안 .....	66
[표 4-13] 작품 ⑦ 색채분석 .....	68
[표 4-14] 작품 ⑦ 작품제안 .....	69
[표 4-15] 작품 ⑧ 색채분석 .....	71
[표 4-16] 작품 ⑧ 작품제안 .....	72
[표 4-17] 작품 ⑨ 색채분석 .....	74
[표 4-18] 작품 ⑨ 작품제안 .....	75
[표 4-19] 작품 ⑩ 색채분석 .....	77
[표 4-20] 작품 ⑩ 작품제안 .....	78

[표 4-21] 작품 ⑪ 색채분석	80
[표 4-22] 작품 ⑪ 작품제안	81
[표 4-23] 작품 ⑫ 색채분석	83
[표 4-23] 작품 ⑫ 작품제안	84



## 【 그 림 목 차 】

<그림 2-1> 대지의 여신을 연상시키는 회화	13
<그림 2-2> 30일간 펙스로 완성된 그림	13
<그림 3-1> 언어 이미지 스케일	24
<그림 3-2> 배색 이미지 스케일	24
<그림 3-3> 훈데르트바서 회화작품의 이미지 스케일	25
<그림 3-4> NCS 색상환	27
<그림 3-5> NCS 색 삼각형	27
<그림 4-1> 젤네일아트-마블	44
<그림 4-2> 젤네일아트-컬러젤	44
<그림 4-3> 젤네일아트-장미	44
<그림 4-4> 젤네일아트-장미와 나비	44
<그림 4-5> 아크릴릭 네일아트-사쿠라	47
<그림 4-6> 아크릴릭 네일아트-장미	47
<그림 4-7> 믹스미디어-피노키오	48
<그림 4-8> 믹스미디어-2011 도쿄 네일 엑스포 출품작	48
<그림 4-9> 믹스미디어-크리스마스	48

# 제 1 장 서 론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여성들의 아름다움을 향한 욕구는 채울 수 없는, 풀리지 않는 영원한 숙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의 욕구 및 감성을 자극하는 미용에 관련된 여러 분야들의 마케팅이 치열하다. 성형, 보톡스, 바디라인 업체 등 여성들의 소비를 자극하는 업계의 소리 없는 전쟁 상황이다. 여성들은 이러한 광고시장 상황을 잘 파악하여,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은 수용하고, 불필요한 부분은 정리하여, 나에게 맞는 아름다움을 완성시켜 나가야 한다.

이러한 여성들의 심리와, 아름다움을 동시에 채워 줄 네일아트가 대중들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2000년 이후부터 여성들에게 네일아트는 자신들의 손 발 관리에 투자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으며, 여름만을 위한 계절 아이템이 아닌, 사계절 내내 함께 하는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다. 실제로 네일아트는 뷰티 산업의 꽃이라고 불리며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네일아트가 발전해 나가면서, 다양한 아트 기법이 선보여지면서 뷰티산업의 브네상스 시대를 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이러한 시장 상황에 발 맞춰 더 많은 네일아트의 디자인이 끊임없이 개발되어야 하는 시점이다.<sup>1)</sup>

소비자의 차별화된 개성과 아름답게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매니큐어의 다양한 문양과 독특한 색채표현이 필요하다. 따라서 회화를 모티브로 하여 디자인에 응용해 재해석하는 방법으로 접근 하였다. 회화작품을 네일 디자인에 접목시키는 것은 매니큐어도 다른 조형 예술과 마찬가지로 선, 형, 색채, 재질 등의 조형 요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예술과 네일 디자인의 접목이라는 시도는 현대 조형예술의 활발한 움직임과 함께 예술적 감각 및 예술장식을 표출하고 회화를 네일 디자인에 도입시켜 활력 있는 네일 디자인의 모티프로 창출하려는 시도가 필요할 것이다. 매니큐어도 2010년에 들어서

1) 출처: 시크릿 네일, <http://www.newswire.co.kr/newsRead.php?no=651572>, 검색일: 2013.05.13.

는 선, 형, 색채뿐만 아니라 재질까지도 표현이 가능한 여러 가지 제품들이 등장하면서 다양한 네일 디자인을 가능하게 발달되었다. 이 시점에서 회화를 모티브로 매니큐어에 도입시켜 다채로운 네일 디자인으로 소비자를 만족시키고 네일 사업을 발전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색채의 마법사이자, 건축 치료사, 환경운동가인 오스트리아가 낳은 예술가인 훈데르트바서(Friedensreich HUNDERTWASSER)의 회화를 네일아트 작품의 모티브로 선택하였다. 특히 훈데르트바서 작품의 회화에 화려하고 과감한 색채와 대담하고 천진난만한 아이들의 그림과 같은 색채와 끝임 없이 등장하는 나선형과 사각형의 장식적인 문양을 분석하여, 훈데르트바서 회화의 다채로운 구성과 재료사용에 대한 풍부한 아이디어를 응용하여 여러 가지 종류의 소재와 기법을 적용해 예술적 효용가치를 극대화하며 개성 있는 네일아트 디자인을 표현하고자 한다.



##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훈데르트바서의 생애와 성장 환경 등 시대적 배경을 통해 그의 작품세계의 사상과 특성을 살펴보고, 네일아트의 디자인 개념 및 표현기법에 관한 이론적 고찰로 구성되어 있다.

훈데르트바서의 화려하고 강렬한 색채와 그의 작품 속에서 보여지는 다양한 문양과 여러 가지 종류의 소재와 기법을 분석하여 네일 디자인을 제안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사용하고자한다.

첫째, 훈데르트바서의 작품분석은 회화의 형성배경 및 작품세계의 조형적 특성을 중심으로 다양한 텍스트를 통한 문헌연구 방법으로 고찰한다.

둘째, 훈데르트바서 작품의 조형적 특성 분석은 훈데르트바서의 작품의 조형적 특성을 세분화하여 형태, 표면, 색채의 특성, 재료 및 모티브의 특성을 감안하여, 작품 속에 표현된 선과 문양의 표현을 정리하고, 훈데르트바서 회화의 모티브를 분석한다. 작품 속에 사용되어진 재료들이 어떤 표현기법으로 도출되어 조형미를 극대화 시킬 수 있었는지를 살펴본다.

셋째, 시각적인 측면에서 이미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훈데르트바서 예술작품 속의 과감하고 마법 같은 색채를 NCS를 사용하여 육안측색을 하고 어떤 색채로 인식되는지를 분석한다.

넷째, 훈데르트바서 회화작품의 선과 형태 및 NCS 색채 분석을 통하여, 조형적 특징을 가진 훈데르트바서의 회화 작품을 선택해 다양한 재료와 기법을 통해 네일 디자인 작품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통해 훈데르트바서의 작품 속에 내재된 조형적 특성들이 어떤 색채와 형태, 기하학적인 느낌으로 네일 디자인에 응용되어 보였는지를 알고 이러한 예술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예술적인 부분을 연관시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새로운 네일아트를 디자인 할 수 있는 간접적인 동기를 부여하는 제안을 하고자 한다.

## 제 2 장 훈데르트바서의 생애와 작품 세계

### 제 1 절 훈데르트바서의 생애

본명은 프리드리히 스토바서(Friedrich STOWASSER). 1928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났다. 대인 어머니와 아리아인 아버지 사이에서 외아들로 태어났으며, 그의 아버지는 그가 태어난 지 1년만인 1929년에 세상을 떠났다. 유대인인 어머니와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다. 제 2차 세계대전 중에는 히틀러의 유대인 탄압으로 외가 친척 69명이 몰살당했으며, 그와 그의 어머니는 유대인 거주지구(게토)로 강제 이주되었다. 이때의 경험은 그의 전 생애에 깊은 트라우마로 남아 평화에 대한 강한 의지와 신념을 갖도록 했다. 그의 생애와 성장환경을 논할 때 양차대전을 주목 할 필요가 있는데 우선 그는 1차 대전(1914-1918)의 후유증이 남아있는 시대에 태어났으며 2차 대전(1939-1945) 속에서 유년기를 보내는 등 전쟁의 한복판에서 성장하게 된다.

열두 살 때 먹을 것이 없고, 곳곳에서는 전투와 총격이 벌어졌으며 도시 전체가 파괴되었다. 이러한 광경은 그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주었고 평화를 그리워하게 되었다. 합스부르크(Hapsburg) 군정이 몰락한 이후 10년 동안, 경제적 어려움은 최악으로 치닫게 되었으며 사회적 긴장과 정치적인 적개심으로 인하여 국가적 사회주의라는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말았다. 그 후 2차 세계대전의 반발은 세계를 증오와 파괴라는 혼란에 빠뜨렸으며, 이런 상황 속에서 훈데르트바서는 포악한 만행에 저항하는 심오한 '인류애와 질서'를 가진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다.<sup>2)</sup> 그 스스로 개명한 프리덴슈라이히 훈데르트바서(Friedensreich HUNDERTWASSER)라는 이름은 “평화롭고 풍요로운 곳에 흐르는 백 개의 강”이라는 뜻으로 그의 삶과 예술에 흐르는 정신을 일깨워준다. 훈데르트바서는 일찍이 색채와 형태에 대한 남다른 감각을 지녀 미술에 두각을 나타냈다. 전쟁 후 빈 미술 1948년 나치에 의해 중단된 비엔나 아카데미(Vienna Academy of Fine Arts)를 들어가게 되지만 3개월 만에 그만두게

2) Françoise Mathey, (1991), 『HUNDERTWASSER』, Paris : Flammarion, p.25.

되며 크게 영향을 끼치지는 못하고 그저 그에게는 지루한 수업으로 기억된다. 그의 전 생애에 걸친 예술과 관련된 정규 교육으로는 5세 때의 몬테소리 교육과 이 과정이 전부라고 할 수 있다.<sup>3)</sup> “농장에서 일할 때 풀이 얼마나 푸르고 땅이 얼마나 진한 갈색을 띠는지 보았다. 그때 나는 화가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는 오직 예술만이 자연을 표현하기 적합하다고 여겼으며, 이것은 훗날 그의 주요 철학이 된다.<sup>4)</sup>

1948년 훈데르트바서는 히틀러 침공으로 중단되었던 고등학교 과정을 대학 입학자격인 바깔로레어를 따면서 마치게 되었고, 스무 살이 되었을 EO 비엔나의 조형예술 아카데미에서 인체에 대한 추상, 누드화 데생과 풍경화에 대한 기초지식을 습득하였다. 그러나 훈데르트바서는 당시에 전형적인 틀에 박힌 교육에 흥미를 느끼지 못해 학교를 떠났다.<sup>5)</sup> 이후에는 유럽 전 지역을 여행하면서 견문을 넓히고 자신만의 독자적인 예술 세계를 만들어 나갔다. 그는 작업실을 따로 두지 않고 집과 야외, 레스토랑, 기차나 비행기 등 자신이 머무르는 곳은 어디에서든 그림을 그렸다. 또한 이젤을 사용하는 대신 캔버스나 종이를 펼쳐놓고 작업했다. 하나의 작품에 수채 물감, 유화 물감, 유성 펜, 아크릴, 템페라, 오일, 금속 등 다양한 재료를 사용했으며, 종이와 캔버스는 물론 프린트지, 포장지, 나무판, 천 조각, 벼려진 종이 등 다양한 곳에 그림을 그렸다. 물감의 대부분도 직접 만들어 사용했다. 훈데르트바서의 그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은 ‘나선’의 형태이다. 그에게 나선은 생명과 죽음을 상징한다. 그리고 시작과 끝이 정해져 있지 않고 끝없이 돌고 있는 나선이야 말로 우리의 삶과 가장 많이 닮아 있다고 생각했다. 또한 ‘색채의 마술사’라고 불릴 정도로 색을 조합하는 능력이 뛰어났다. 그는 전통적인 색의 조합에서 벗어나 보다 자유롭고 대담한 컬러를 사용했다. 그의 특유의 색감은 회화에서 주제를 드러내는 데 주조적인 역할을 했으며, 생명의 다양함과 무한함을 색채를 통해 표현했다. 그의 성장 배경중 주요 요인인 전쟁은 이후 자연에 대한 조화, 더 나아가 인간과 풍요로운 자연과의 공존을 추구하고 환경주의자

3) 정유진, 김홍섭(2011), 「훈데르트바씨의 작품세계와 특성에 관한연구: 회화작품의 건축 구현을 중심으로」, 『한국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20권 6호, 한국설내디자인학회, p.98.

4) Anne Sauvadet, Rand Harry(2003), 『Hundertwasser』, Koln : TASCHEN, p.11.

5) Rand Harry,(1993), 『Hundertwasser』, Koln : TASCHEN, p.11.

가 된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스페인, 뉴질랜드, 아프리카, 인도, 미국, 일본등 다양한 세계로의 여행은 또한 그에게 범세계적 공존을 위한 삶의 추구로까지 확장 된다. 성 바바라 성당에 세워진 12개의 아치입구에 표현된 이슬람, 흰두교, 불교, 유대교, 유교 등 세계 각국의 종교적 상징들은 모든 종교에 대한 관용을 상징하며 각 문화에 대한 존경과 화합을 표상한다. 이는 홀로코스트를 겪어낸 그의 유년 시절과 문화의 충돌, 종교의 충돌이 만들어 낸 전쟁에 대항하는 사회에 대한 그의 예술운동이다.

어쩌면 이러한 그의 생의 가치관은 세계 1차 대전, 세계 2차 대전으로 황폐해진 삶의 전후과정을 직접 피부로 느끼며 자란 그의 삶에서는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sup>6)</sup> 1983년 훈데르트바서는 빈의 시의회가 의뢰한 공공주택 리모델링 작업에 착수했다. ‘건축은 네모다’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탄생한 《훈데르트바서 하우스》에는 건축을 통해 지상낙원을 실현하려는 그의 꿈이 녹아 있다. 그는 ‘자연에는 직선이 없으며, 인간은 이 땅의 모든 생명체와 더불어 자연스럽게 살아가야 한다’는 신념을 건축 안에 쏟아 부었다. 빈의 가장 유명한 건축물 가운데 하나인 《쿤스트하우스 빈》 역시 그의 이러한 철학이 그대로 투영되었다. 그는 도시의 메마른 건축들에 생명을 불어넣어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공간으로 탈바꿈 시켰다. 훈데르트바서는 자연보호, 산림운동, 반핵운동 등 예술 밖에서도 활발한 운동을 실천한 환경 운동가이기도 했다. 그는 생태주의 복음을 설파하며 캠페인 포스터를 제작하고 시위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철학을 꾀력했다. 일생을 환경보호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헌신한 그는 2000년 태평양을 항해하던 엘리자베스 2호 갑판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그의 나이 71세였다. 그는 유언에 따라 뉴질랜드에 있는 그의 땅 ‘행복한 죽음의 정원’ 안에 있는 툴립나무 아래 자연과 어우러져 생을 마감했다.<sup>7)</sup>

---

6) 정유진, 김홍섭, 전계논문, p.98.

7) <http://terms.naver.com/entry.nhn?cid=200000000&docId=1355475&mobile&categoryId=200000905>, 검색일: 2013.05.13

## 제 2 절 훈데르트바서의 시대적 배경

양차대전이라는 시대적 배경과 더불어 훈데르트바서에게 영향을 끼친 문화적인 예술사조와 영향을 준 사람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개성적인 작품들로 어떤 예술사조라고 특히 꼽을 수 없는 그 이지만, 아르누보(Art Nouveau)와 비엔나 분리파인 세제션(Secession)을 영향을 받았다고 그 자신도 회고하고 있다. 하지만 이어서 벗어나 그는 독특한 스타일을 일궈나갔다.<sup>8)</sup> 아르누보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걸쳐서 유럽 및 미국에서 유행한 장식 양식으로 대개 전통으로부터의 이탈, 새 양식의 창조를 지향하여 자연주의, 자발성, 단순 및 기술적 완전을 이상으로 했다. 종래의 건축, 공예가 그 전형을 그리스, 로마 또는 고딕에서 구한 데 대해서, 이들은 모든 역사적인 양식을 부정하고 자연형태에서 모티프를 빌려 새로운 표현을 얻고자 했다. 특히, 넝쿨풀이나 담쟁이 등 식물의 형태를 연상하게 하는 유연하고 유동적인 선과, 과상 및 곡선과 무늬 형태 등 특이한 장식성을 자랑했고, 유기적이고 움직임이 있는 모티프를 즐겨 좌우대칭이나 직선적 구성을 고의로 피했다. 하지만 기능적인 측면을 소홀히 한 형식적이고 탐미적인 장식으로 빠질 위험도 커 아르누보가 비교적 단명한 이유가 되었다.<sup>9)</sup>

1890년대 비엔나의 미술계는 ‘미술가 협회(The Academy of Fine Art)’와 ‘예술가 조합(Kunstlerhauses)’이 이끌어 가고 있었다. ‘예술가 조합’은 ‘미술가 협회’와 마찬가지로 아카데믹한 전통을 고수하면서 정기적인 전시회를 목적으로 대부분의 비엔나 예술가를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예술가 조합’의 진보적인 젊은 예술가들은 비공식적인 카페에서의 모임을 통해 많은 토론을 하고 이 집단에 속해있는 보수적인 예술가들의 간섭을 벗어나 상업적 조건이 배제된 그들만의 전시 장소를 갖고자 하였다. 그들의 계획은 창작할 권리를 주장하는 예술 자체를 위한 투쟁의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예술과 부수적인 공예, 그리고 가난한 자와 부자들의 예술을 차별하지 않은 것이었다.<sup>10)</sup> 그가 자란 오스트리아 비엔나는 전쟁의 한복판에 있었지만, 또한 예술사적

8) 정유진, 김홍섭, 전계논문, p.98.

9) <http://100.naver.com/100.nhn?docid=104402> 미술사일반>아르누보, 검색일: 2013. 05. 13

10) Frodl Grbert(1992), 『Gustav Klimt』, Salzburg : Verlag Gallrie Welz, p.54.

으로 보면 빈 분리파(Secession)의 중심이었다. 그의 문화적 배경인 고향 비엔나서는 1897년 구스타프클림트(Gustav Klimt)를 주축으로 낚고 판에 박힌 사상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고 미술과 삶의 상호 교류를 통하여 인간의 내면적인 의미를 미술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빈분리파가 결성 되었다.

분리파는 ‘분리된 서민(secessio plebis)’라는 라틴어에서 유래된 용어로, 이는 아카데미즘이나 관 주도의 전시회로부터의 분리를 의미한다. 따라서 과거의 전통에서 분리되어 자유로운 표현 활동을 목표로 했으며 그 목적은 미술과 삶의 상호 교류를 추구하고 인간의 내면을 미술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데 있었다.<sup>11)</sup>

빈 분리파에는 특정한 예술 이념이나 양식은 없었지만 빈 분리파 전시관 입구에 새겨진 “각 세기마다 고유한 예술을, 예술에는 자유를 to every ago its art and to art its freedom”이라는 문구로 이들은 무엇보다도 아카데미의 오랜 역사와 전통의 틀 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실험하였다. 따라서 예술 경향과 국적을 초월 하였으며 전위미술에도 상당히 우호적이었다.<sup>12)</sup>

훈데르트바서는 1950년 당시 추상표현주의자들에 의해 공유된 자유로운 영감으로부터 구분된다. 그리고 아르누보(Art Nouveau)의 영향을 받아 구스타르 클림트의 풍부하게 표현들과 에곤 셜레의 일그러진 나르시시즘을 혼합해 냈다.<sup>13)</sup>

그는 타고난 창조성을 기반으로 트랜스오토마티즘(Transautomatism)이라는 이론을 발전시키고 나선형을 그의 작품의 기본적인 모티브로 채택한다. 밖으로 휘어져 나가면서도 안으로 휘감기는 미로 같은 나선궤도 속에서, 훈데르트바서는 삶 그 자체의 결코 끝나지 않는 자기 재생적 과정의 표상을 보았던 것이다. 그는 클림트의 “세련되고 온화한 곡선미를 회피하는 대신 양파의 절단면에서 보여지는 것 같은 동심원에 관심을 기울였고 낙서 같은 약간은 원시적인 양식에 몰두하였다. 그 결과 강렬하게 채색된 보석 모양의 형태, 혹은

11) 정유진, 김홍섭, 전계논문, p.99.

12) <http://100.naver.com/100.nhn?docid=831131>, 검색일 : 2013. 05. 13

13) 정애희(2012), 「훈데르트바서(Hundertwasser)의 회화 작품을 응용한 니트웨어 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6.

형태의 흔적 조각들을 새긴 화장하는 원들로 표현되어 졌으며, 더불어 페르시아의 카페트나 발칸의 자수처럼 생명력 있는 장식적인 표현들을 탄생시켰다.<sup>14)</sup>

또한 클림트의 황금시대의 작품들은 훈데르트바서의 회화 작품 및 건축물에서 황금빛 양파모양 돔으로 표현되고 있다. 하지만 그는 황금을 그만의 언어로 재해석 한다. 그에게 있어서 건축물에 높이 얹혀진 황금알은 자연을 순환시키는 매개체인 것이다. 1975년 발표한 자연 발효식 화장실 사용을 주장하는 그의 시를 보면 동은 황금으로, 땅이 흙으로 바뀌고 지붕위에 올려져 초원으로, 숲의 정원으로 변하여 환경을 풍요롭게 하는 천연자원인 황금알이 되는 것이다.

이렇듯 양차대전에서의 피폐해진 삶의 터전에 반해 안식을 주는 자연의 풍부함과 아르누보의 유기적인 선형요소, 빈분리파의 풍요로운 황금물결에서 감동을 받은 훈데르트바서는 이러한 시대적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그만의 독특한 언어로 인간과 자연과의 공존을 꿈꾸게 된다.<sup>15)</sup>

1980년은 훈데르트바서에게 의미 있는 해가 된다, 비엔나 시의회가 케겔가세(Kegelgasse) 34-38번지와 뢰벤가세(Lowengasse) 41-43번지 귀퉁이에 미래의 집인 '훈데르트바서 하우스'를 건립함에 따라 '건축의 의사'라는 호칭으로 불리게 된 것이다. 이 무렵, 세계를 순회하며 그림과 판화들을 전시하는데 그 작품에는 그의 건축학적 철학이 잘 표현 되어있었다. 하나의 계획은 새로운 구상으로 이어졌고 캠페인은 밀도 있는 참여로 발전했다.<sup>16)</sup>

훈데르트바서는 결과의 효율성이나 원칙의 적합성 면에서 훨씬 믿을만한 건축학적 결과를 제시 하였는데 그의 손을 거친 사회프로젝트들은 미(美)에 대한 전체적인 비전을 통합하는 개인적인 창조물이자 훌륭한 예술작품으로 나타났다. 훈데르트바서는 자신의 근원적인 힘을 미학에서 찾았는데 집단적 이데올로기가 아닌, 직관적 개인의 감성으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통해 전달되기를 희망했다. 그는 자연과 인간의 평화로운 조화를 자신의 철학으로 삼고, 삶과 작품으로 구체화 시켰다. 2000년 인간과 자연이 예술을 통해 조화롭게

14) 정애희, 전계논문, p.7.

15) 정유진, 김홍섭, 전계논문, p.99.

16) Pierre Restany,(2003), 『HUNDERTWASSER』, Koln : TASCHEN, p.10.

되기를 꿈꾸던 훈데르트바서는 갑작스런 죽음을 맞는다. 그것은 진솔한 삶을 위한 많은 현대 건축프로젝트의 중단과 단절을 가져오게 되었다. 자연주의자로 평화주의자로 실천을 통한 예술의 대중화에 힘써온 그의 삶은 죽적 그대로가 평화와 자연의 소통이었다.<sup>17)</sup>

### 제 3 절 훈데르트바서의 작품 세계

훈데르트바서는 우리는 제1의 피부 몸, 제2의 피부 옷, 제3의 피부 주거공간, 제4의 피부 사회 환경, 제5의 피부 지구 등 5개의 피부로 이루어져 있으며 우리를 둘러싼 이 다섯 가지의 피부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하였다.<sup>18)</sup>

훈데르트바서의 피부들은 레이어의 개념이며 각각의 피부는 외부로 부터 우리를 보호함과 동시에 개성과 독창성을 표현한다고 말한다. 훈데르트바서는 사람과 자연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유지체로 보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나와 타인과 건물과 자연이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는 삶을 주장했던 것이다. 각각의 피부는 궁극적으로 자연과 조화되어 인간성 회복에 기여해야하고, 각각의 피부들은 개별적이면서도 유기적으로 얹혀 있어 이들이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할 때에 우리가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sup>19)</sup>

훈데르트바서의 작품 속에서 드러나는 화려한 장식성은 풍부함으로 인해서 역동적으로 재현된 것처럼 보인다. 현대의 기호가 규정하고 있는 모든 것을 뛰어넘는 대담한 장식과 모양은 그의 작품 속에서 경이로움과 색다른 존재를 이룬 것이다.<sup>20)</sup>

훈데르트바서의 작품에서 빨강, 노랑, 파랑의 원색적인 색채, 흰색과 검정의 반복되는 대비, 반짝거리는 금은 색으로 강조된 색채 대비를 과감하게 사용하면서 오히려 모든 것을 표현하는 감각자로 알려진다.

훈데르트바서는 직선 혐오는 유명했다. 1954년 파리의 파체티 갤러리에서 열었던 전시회에서 “직선은 인간성의 상실로 이어진다.”라고 선포한 후 훈데

17) 송명숙(2011), 「Hundertwasser의 5겹 피부이론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Hundertwasser's Five Skins Theort」,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8.

18) 정유진, 김홍섭, 전계논문, p.99.

19) 송명숙, 전계논문, p.45.

20) Rand Harry, *op.cit.*, p.1.

르트바서의 이론적 저술에서는 주기적이고 반복적으로 한 가지 슬로건이 등장하게 된다. “직선은 무신론적이고 비도덕적” 이라는 것이다. 훈데르트바서의 초기 스타일 확립은 두드러진 장식적 경향과 더불어 그를 즉각 정신적인 작업실이라는 폐쇄된 세계, 그의 내향적 비전이라는 미로 속으로 가두어버렸다.<sup>21)</sup>

훈데르트바서의 나선형은 다른 껍질 속에 하나의 또 다른 껍질을 가진 양파처럼 구성되어진다. 그 형상은 항상 즉시로 표출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직물로 짜인 형태를 지닌 채 존재한다. 나선형은 마치 살아 있는 것의 만남으로 모든 자연의 창조를 의미하는 것처럼 보인다. 나선은 삶과 죽음의 상징이며, 그것은 우리 인간에게 하는 창조의 상징이다.<sup>22)</sup>

나선과 곡선이 주를 이루는 회화작품을 보면 거대한 나선으로 이루어진 대자연, 즉 땅에서 우리가 사는 공간과 환경은 거대한 나선의 한 부분, 일부분인 곡선인 것이다.

<그림2-1> 대지의 여신을 연상시키는 회화에 따라서 훈데르트바서는 우리가 사는 공간을 곡선으로 만듦으로서 커다란 나선이 연결되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의 이러한 유기적인 자연의 곡선은 그의 상상력에 기인하는 나선으로 구현되는데 그는 이러한 방법을 트렌스오토마티즘(Transautomatism)이라고 명하였다. 마음의 움직임을 그대로 기술하는 자동심리기제 방법의 오토마티즘은 참다운 사고의 기능을 언어나 문자의 형태로 표현하려는 시도로 무한한 힘, 잠재의식에 대한 기본 바탕이다. 훈데르트바서는 순수한 창작 욕구를 일으키기 위해서 의식적인 생각을 자제하는 방법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는 이러한 오토마티즘을 넘어서, 본인의 경험과 상상력을 더하는 그만의 나선 세계를 표현하게 된다. 그의 회화작품은 식물의 유기적 성장처럼 자라게 되는데, 그는 그림을 그릴 때 중간에 그림을 멈추고 일정기간 동안 나두어 그림에게도 자랄 시간을 주게 한다. 이때부터 그는 그의 작품에 번호를 부여하기 시작했다.<sup>23)</sup>

훈데르트바서는 판화 분야에서도 다양한 기법의 실험을 통해 자신의 회화

---

21) Pierre Restany, *op.cit.*, p.16.

22) 송명숙(2011), 전계논문, p.45.

23) 정유진, 김홍섭(2011), 전계논문, p.99.

작품처럼 뛰어난 표현을 시도하였다. 훈데르트바서가 처음으로 판화를 접하게 된 계기는 아트클럽의 알프레드 슈멜러의 중재로 1951년 로타 프린트에서 일 하던 한 명의 인쇄업자가 그에게 표명한 관심에서 비롯되었다. 그는 회사로부터 인쇄기계를 빼어내 판화를 찍어낼 수 있게 하였고, 훈데르트바서는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9개의 판화가 수록된 포트폴리오를 제작하였다.<sup>24)</sup>

1994년 훈데르트바서는 30일 동안 매일 타이프용지에 펜화를 그려 그것을 친구에게 팩스로 전송하였다. 그 30일간의 팩스를 모아 작품을 만들었는데 그의 회고록에서 좌측 상단에서부터 작업을 시작했지만 작품을 어떻게 전개 할지 미리 계획하진 않았다고 한다. 그날그날 작가의 사건과 기분에 따라 주제가 정해지고 한 달이 지난 후 작품을 완성하게 되었다. <그림2-2>30일간에 팩스로 완성 된 그림을 보면 그렇듯이 그의 작품은 자연의 산물처럼 시간을 두고 유기적으로 자라게 되었다.<sup>2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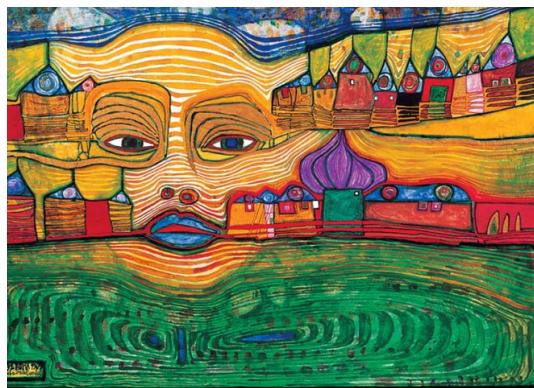
훈데르트바서는 유일하게 우표에서부터 건물 전체에 이르기까지 모든 차원의 작품을 만들어낸 현대예술가이다. 1979년 훈데르트바서가 세네갈을 위해 구상한 3개의 나선형나무 우표를 최고의 우표전통을 자랑하는 오스트리아 국립인쇄소가 찍어냈는데 이 우표들은 세네갈 대통령이며 시인인 Leopold Sedar Senghor의 극찬을 받게 되었다.<sup>26)</sup>

---

24) Rand Harry, *op.cit.*, p.67.

25) 정유진, 김홍섭(2011), 전계논문, p.101.

26) Rand Harry(1993), *op.cit.*, p.157.



<그림 2-1> 대지의 여신을 연상시키는 회화, 1971-1972 (Irinaland over the Balkans)



<그림 2-2> 30일간 팩스로 완성된 그림. 1994 (30day Fax picture)

훈데르트바서는 유일하게 우표에서부터 건물 전체에 이르기까지 모든 차원의 작품을 만들어낸 현대예술가이다. 1979년 훈데르트바서가 세네갈을 위해 구상한 3개의 나선형나무 우표를 최고의 우표전통을 자랑하는 오스트리아 국

립인쇄소가 찍어냈는데 이 우표들은 세네갈 대통령이며 시인인 Leopold Sedar Senghor의 극찬을 받게 되었다.<sup>27)</sup>

1975년 훈데르트바서는 오스트리아 체신청의 요청으로 "오스트리아 근대 미술" 시리즈를 디자인하게 되었고, 오늘날 오스트리아 체신청은 매년 훈데르트바서와 발터 코샤츠키가 추천하는 국내 예술가에게 디자인을 의뢰한 우표를 발행하고 있다.

훈데르트바서가 디자인한 세 장의 우표는 오스트리아 국립 우정인쇄국에서 차이델이 조판, 1979년 12월 10일 세네갈에서 발행되었다. 나선형을 계승해 만든 거문나무들, 머리, 무지개창문 등 의 4실링짜리 우표는 우표 디자인 미술에서 훈데르트바서의 형명을 완성하였다.

색채의 다중 인상에는 뭔가 굉장한 것이 있었다. 그라비아 인쇄와 스크린을 결합하여 노란색부터 은색, 터키색, 울트라마린블루까지 온갖 선명한 색깔, 검은색을 위한 소프트 스팟과 그 밖의 다양한 색들도 만들어낸다. 우표의 접착제는 특별히 열대지역 국가를 위해 제작하였다. 이 작은 우표들은 32.25×42mm 사이즈의 위대한 회화인 것이다.

우표 예술 분야에서 훈데르트바서의 명성은 오늘날 축성을 받았다. 60프랑 짜리 "검은 나무들" 우표가 특별판 17,500장외에도 30만 장이 발행되었고, 훈데르트바서의 우표 디자인에는 그가 가장 좋아하는 이미지, 다시 말하면 그의 가장 깊은 신념을 표현한 이미지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때때로 그 목적이 자신의 사상과 일치하는 국제기구의 회합 등을 가념하기 위한 우표를 디자인하기도 하였다. 그 대표적인 예가 1983년 세계 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Man) 채택 35주년을 기념하는 UN 우표이다. 우표의 명칭도 중요하다. "자연과의 조약", "창조의 권리", "Homo Humus Humanitas", "꿈꿀 권리" 등등. 나선형은 "창조할 권리"를 묘사하며, 건물 외벽의 패치워크는 "창문에 대한 권리", 아몬드 모양의 눈 위에 녹색 모자를 놀러쓰고 요란한 색깔의 비대칭적인 옷을 입은 한 무리의 캐릭터들은 "제 2의 피부"를 표현하기도 했다.<sup>28)</sup>

27) Rand Harry, *op.cit.*, p.157.

28) 피에르 레스타니(2010), 『훈데르트바서: 다섯 개의 피부를 지닌 화가왕』, 서울 : 마로니에북스, p.68.

훈데르트바서의 창조에 있어 건축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를 통하여 그는 친환경적, 생태적의 중요성을 종합적으로 표현하게 된다. 그의 건축 작업에서 건축 재료와 표현 역시 다섯 가지 함축적인 친환경적 표현을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첫째, 자연주의적 친환경재료와 색상을 두드러지게 볼 수 있다. 그가 자신의 그림에 강하고 생동감이 있는 색채를 다양하게 사용하듯이 그의 건축물 또한 다양한 색채가 사용되어 동화 같은 세계를 연상케 한다.

둘째, 훈데르트바서는 직선은 신의 부재라고 하며 직선을 쓰는 것은 자연을 거스르는 행위로 말하고 있다. 그는 그럼 뿐만 아니라 건축에서도 일직선의 사용을 꺼렸다. 일직선은 무신 직이고 비도덕적이며 하나의 허구이다.

나아가 일직선을 인간에게 어울리지 않는 유일한 비창조적인 선으로 보고 있다. 그는 자로 똑바로 그은 일직선이 인간을 병들게 한다고 했다. 그가 관여한 건축물에 가능한 한 직선을 회피하고 유기체적인 선, 즉 곡선을 사용한다. 이는 건물의 지붕선, 외벽면의 장식, 베란다의 모양 등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듯이 그의 모든 건축에서 곡선이 사용되었다.

셋째, 훈데르트바서는 인간이 자연으로 환원시켜야 하는 의무를 통하여 그의 건축은 대지의 경계를 무시하고 지붕위에 흙을 덮거나 대지의 아래에 건축을 하였다. 이로 인하여 두더지의 집이라던가 기타의 형태들로 건축이 이루어 졌고 이는 대단지 건축 프로젝트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그는 자신의 그림 뿐 아니라 건축에 있어서도 파동을 사용한다. 그에게 있어 양파 모양은 복, 행운, 복지, 충만 그리고 결실성을 의미한다고 그는 믿고 있으며 건축에 있어서 낙원의 상징이라고 말한다. 그의 건축물에 세워진 양파 돔은 대부분 금색인데 이 경우 색을 칠한 것이 아니고 도금을 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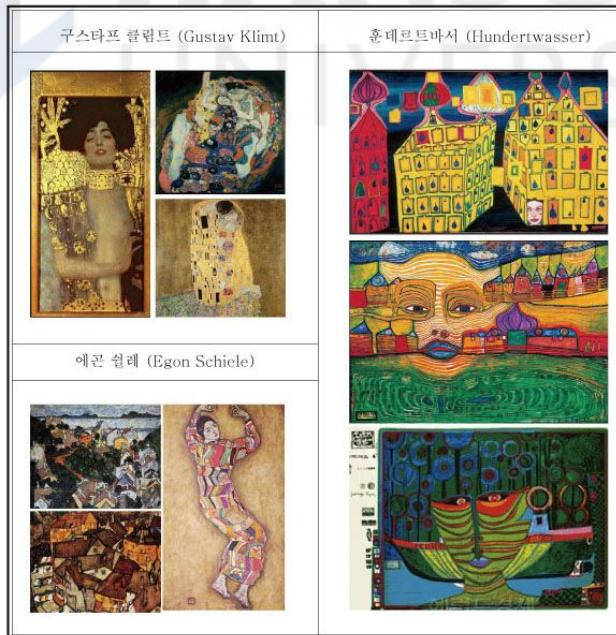
넷째, 훈데르트바서가 선호하는 나선은 기하학적인 의미에서의 정확한 나선이 아니다. 그는 삭막한 기하학을 생명이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기하학적인 의미에서의 나선은 죽은 나선으로 본다. 훈데르크바서의 나선은 "식물적 나선(Vegetative Spirale)"이라고 표현하며, 이것을 나선이 아니라 원형인 점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굴곡이 있고 선이 굽어지기도 가늘어 지기도 하는 나무의 나이테와 비교한다.

"나의 나선은 식물처럼 자라나고 죽음을 맞이한다. 나선의 선들은 구불구불한 강처럼 식물의 성장법칙에 순응한다. 나는 그저 나선이 자신의 길을 택하고 그 길을 따라가도록 내버려 줄 뿐이다. 이렇게 할 때 나는 실수를 피할 수 있다."

다섯째, 훈데르트바서의 건축에 있어서 창문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으며 창문은 건물의 눈이라고 생각했다. 눈이 사람의 얼굴 인상 갖는 의미와 마찬가지로 그에게 있어서 창문은 그 건물의 모습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훈데르트바서에게 있어서 창문은 나아가 건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장소 일 뿐만 아니라 거주 인에게 자신을 표현하고 자신의 동질성을 확인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도시의 공공연한 자리이다.

훈데르트바서가 사용하고 표현하는 재질과 색상 그리고 선의 형태, 생명과 죽음의 상징이라고 말하는 나선, 창문의 권리 등이 그의 자연주의 경향을 잘 말해주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자연의 중요성과 되돌려야 하는 의무를 표현하고 있다.<sup>29)</sup>

[표 3-1] 클림트, 쉴레, 훈데르트바서의 대표적인 회화작



29) 이근우(2012), 「훈데르트바서의 자연주의적 친환경 공간의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국민 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30-36.

## 제 3 장 훈데르트바서 작품의 조형적 특성 분석

### 제 1 절 훈데르트바서 회화 작품의 연대별 특성

훈데르트바서의 회화 작품은 초기, 중기, 후기의 연대 별로 특징을 나눠 볼 수 있다. 1934년 첫 드로잉을 시작해 1936년에는 비엔나 몬테소리에서 ‘색채와 형태에 대해 남다른 감각을 지닌 학생’이라는 평을 받았다. 1950년대부터 훈데르트바서의 특징적인 나선형 형태가 등장하기 시작한다. 빈 분리파 양식의 아르누보 영향을 받아 다양한 곡선을 표현하였는데 특히 클림트, 쇠레, 클레로부터 영감을 받았다.

클림트, 쇠레, 훈데르트바서의 그림 형태적인 것으로 만 보았을 때 직선이 없고, 면을 나눈 것이 묘하게 닮을 것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각자의 특징이 색감으로 분리된다. 훈데르트바서는 오스트리아 바로크의 육감 적이고 화려한 색채에 영향을 받았다. 자연에 대한 애정과 관심은 인간 또는 산업에 의한 자연 파괴에 맞서 보호해야 한다는 관념을 만들었다. 그러한 훈데르트바서의 숙명은 이성적 메커니즘과 직선적인 구도를 혐오로 표출되고 있었다.

중기 1960년대에서 1970년대 까지 그의 작품은 성숙기로 볼 수 있다. 일본 문화에도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서 판화 분야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한 시기이다. 판화로 나선형을 표현하기도 하고 다양한 기법을 실험 하였다.

1967년 인쇄기술이 발전하면서 훈데르트바서는 과거보다 더 다양해지고 풍부해진 색채들을 볼 수 있다. 또한 아프리카의 강렬한 색감에도 영향을 받아 강렬한 색채를 보여주는 작품도 늘어났다. 후기 1970년에서 2000년에 이르기까지 훈데르트바서는 유럽인 최초로 목판화 작품을 제작하였고, 1975년 이래로 우표를 직접 디자인 하였다. 1987년 건축물에도 나선형을 도입하였다.

[표 3-2] 훈데르트바서 회화작품의 연대별 특징<sup>30)</sup>

훈데르트바서 회화작품의 연대별 특징	
초기(1928-1960) 주요작품	연대별 작품 특징
 <p>[아씨시]로 가는 길</p>  <p>[포르타 소프라나와 고충건물]</p>  <p>[동글게 도는 꾀 그리고 나는 자연거울 가지고 있다]</p>  <p>[녹색여인-정치의정원사]</p>  <p>[기나긴 예정]</p>	<p>1934년 첫 드로잉</p> <p>1936년 비엔나 몬테소리에서 ‘색채와 형태에 대해 남다른 감각을 지닌 학생’이라는 평을 받음</p> <p>1953년 회화에 독특한 나선형 형태등장 클립트, 쉴레, 클레로 부터 영감을 받음</p> <p>1954년 창조성을 바탕으로 트랜스오토마티즘을 발전시킴</p>
중기(1960-1970) 주요작품	연대별 작품 특징
 <p>향 해 I</p>  <p>향 해 II</p>	<p>작품의 성숙기</p> <p>판화분야에 다양한 기법 실험</p> <p>판화에서도 나선형을 표현함</p> <p>1967년 인쇄술의 발전으로, 과거의 작품보다 색채들이 더 다양해지고, 풍부해짐.</p> <p>아프리카의 강렬한 색감에 영향을 받음</p>
말기(1970-2000) 주요작품	연대별 작품 특징
 <p>[창문의 대한 권리]</p>  <p>[오스트리아]</p>  <p>[쿤스트하우스빈]</p>	<p>1973년 유럽인 최초로 목판화 작품 제작</p> <p>1975년 이래 우표 디자인</p> <p>1987년 건축물로 나선형 구현</p>

30) 정애희, 전계논문, p.17.

## 제 2 절 훈데르트바서 회화 작품의 형태적 특성

훈데르트바서는 무엇보다도 비엔나 분리파(La Seoession Viennese)<sup>31)</sup>가 추구했던 전통적인 표현방식을 계승한 독자적인 화면구성으로 모방 할 수 없는 장식적이고 세련된 색채 감각을 보여주었으며, 화려한 평면적 작품세계는 현대적 감각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 인쇄물, 회화, 건축, 책속에 표현된 상상, 판화 의류 심지어 우표까지 인지 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예술분야에서 아르누보(Art Nouveau)<sup>32)</sup>의 분위기가 주를 이루었다. 아르누보를 분석한 S. T. 모드손(S. T. Modson)<sup>33)</sup>은 그의 저서 '아르누보'에서 표현양식을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첫째, 추상적, 구상적, 상징적, 아르누보 양식으로 매우 독창적인 C자 또는 S자의 유연한 동선들이 연속적으로 나타나 마치 움직이는 불꽃과 같은 느낌의 자연물, 특히 식물의 양식화된 선의 리듬은 아르누보의 본질적 특성을 이룬다. 둘째, 꽃과 유기적인 아르누보 양식으로 세기말적인 성취와 세련미를 갖는 양식으로 주로 자연물, 특히 꽃을 주제로 하여 유선형의 과도치는 생동감을 특색으로 한다. 셋째, 선적, 평면적 아르누보 양식은 종래의 아르누보 양식에 직선적인 경향이 추가된 것으로 식물의 줄기와 같은 유기적인 선이 추상적으로 구상과 만나 기묘한 생동감을 준다. 넷째, 구상적, 기하학적 아르누보 양식으로 순수한 곡선적 장식미를 벗어나 직선, 삼각형, 사선 등의 기하학적인 선과 구도를 주로 응용하였으나 아르누보의 특성인 생동감과 우아함은 여전히 기본적 특성으로 남아있다. 그리하여 비엔나의 전통은 이미 훈데르트바서의 예술 세계의 기초로 다시 자리 잡게 되었으며 변화와 다양성을 시도할 수 있는 나선형을 작품에 도입하여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sup>34)</sup>

31) 비엔나 분리파는 1897년 클림트(Gustav Klimt, 1862~1918)의 주도하에 진보적 미술가들에 의해 결성된 모임이다. 아카데미즘이나 관 주도의 전시회로부터의 분리를 의미한다. 따라서 과거의 전통에서 분리되어 자유로운 표현 활동을 목표로 했으며, 미술과 삶의 상호교류를 추구하고, 진부한 사상을 담습하지 않는 작품을 제작하고자 하였다.

32) 19세기 말기에서 20세기 초기에 걸쳐 유럽 전역에서 유행한 장식 미술을 일컫는 명칭으로 건축, 공예, 회화 등에 나타난 새로운 예술 양식이다. 식물적 모티브에 의한 곡선의 장식 가치를 강조한 독창적인 작품이 많으며, 20세기 건축이나 디자인에 영향을 미쳤다.

33) 송명숙, 전계논문, p.12.

34) 조환아(1998), 「훈데르트바서의 미술세계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2.

초기의 분리파 전시회는 정교한 곡선과 풍부한 장식의 아르누보 양식이 지배적이었으며, 이 때문에 아르누보는 비엔나 분리파 양식(Secession still)으로 불려졌다. 아르누보를 규정짓는 시각적 특징은 직물의 유기적인 선으로 중력이나 혹은 뿌리로 부터 해방된 구성적인 선이 주어진 공간을 설정하고 조정하고 장식하면서 격렬하게 소용돌이치거나 우아하게 흐르는 듯이 이어진다. 포도넝쿨, 장미, 백합 같은 꽃과 새(특히 공작), 여성의 모습 등이 이러한 유연한 선을 형성하는 주요 모티브가 되었다. 그리하여 분리파 양식은 회화나 건축 이외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공예나 디자인 분야에도 일대 혁신을 일으켰다. 훈데르트바서의 예술에 중심적인 기저로 흐르고 있던 비엔나분리파는 '예술의 종합화와 생활화'를 목표로 하여 당시 예술가들에게 많은 영행을 주었다. 훈데르트바서는 또한 '감각의 결합'이라는 형세변화를 채택 함으로써 나선형 유기체계를 그의 회화의 중심적 명제로 선택하였다. 그것은 서로 다른 성질이 '감각의 결합'에 의해 그의 내부에 일으켜 세워진 정신의 운동이며, 화가의 내적 투쟁이 전개된 것으로 심리, 물질 등 인간적 조건에 일체적으로 원용된 합일체이다. 그의 화면이 원시적인 단순함을 보이면서도 복잡한 감성을 지닌 현대인에게 감동을 일으키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결합의 결과에 있었다.

이처럼 '감각의 결합'의 결과로, 훈데르트바서의 예술은 합리적, 기계론적 현대세계에 대한 거부와 더불어 파괴적인 직선과 바우하우(Bauhaus)미학에 대한 거부로 이어졌으며, 낭만적, 생태론적 그리고 자연 회귀적 유기체설에 대한 긍정으로 표현되었던 것이다. 훈데르트바서는 무의식의 여러 계층까지 작품에 포함시킴으로써, 이 세계를 가시적 현실의 유도체로 이미지를 창조하는 새로운 작업의 선구자로 활용했다. 마술적이고 자기도취적인 훈데르트바서의 작품세계는 매혹의 힘을 지니고 있으며, 그는 구스타프 클림트(Gustav Klimt, 1862~1918), 에곤 쇠레(Egon Schiele, 1890~1918), 파울 클레(paul Klee, 1879~1940)로 부터 영감을 받은 예술적 바탕 위에 초자동주의(Transautomatism)를 창시하였다. 그의 작품에 대한 사상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1952년2월 비엔나 아트 클럽(Art Club, Vienna)의 개인전개막식 때 그는 자신의 작품 속 전반적인 주제에 관한 연설을 하면서

“나의야망은 나를 우리 문명이 가지고 있는 허세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다.”라고 말함으로써, 재래적인 것, 보수적인 것은 물론 아카데미즘 등 개인의 창조적 충동을 억압하는 모든 것에 대항하는 투쟁을 벌였다.<sup>35)</sup> 훈데르트바서는 인식론적 편견과 합리적 분위기를 자신의 건축적 원칙에 투사했다. 그는 건축에서 인간적이고 장식적인 부분을 무시함으로서 야기된 구조와 기능의 주도권을 모든 악의 근원이자 획일성과 추함의 어머니인 직선에 비유하였다. “비도덕적이고 경건하지 못한 직선” 그것은 훈데르트바서가 종교적 열정을 가지고 자연주의적 선택을 한 이유였다. 그의 자연주의는 현존하는 인간의 도덕적 위생학으로 제시된다. 그것은 도덕적 의무를 완수하는 데 있어서의 완벽한 증거이다.<sup>36)</sup> 훈데르트바서는 자신의 도덕적 타당성을 설득을 통해 확신시키려 하지 않는다. 그의 행위는 행위자체 뿐 아니라 그의 선연까지도 포괄한다. 특히 비엔나에서 진실주의는 스캔들에 휘말리게 되는데 훈데르트바서는 어리석은 비트족 내지 정신적 테러리스트의 꼭두각시라는 비아냥거림을 듣게 되었다. 그는 별 5개가 아니라 하더라도 자신이 지닌 별점을 믿었다. 까다롭다고 여겨지던 많은 진술들, 무책임하다고 지적된 다양한 행위들이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결국 훈데르트바서는 아르누보의 표현양식과 구스타프 클림트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나선형을 이용한 초자동주의 이론을 개발하고 자연주의적 영향을 받았다.<sup>37)</sup>

또한 벽화에서는 타원, 삼각형, 곡선 그리고 소용돌이 문양과 평면적 장식 요소를 사용하였고 특히 인체들은 추상적이고 앞으로 돌출해 보이는 나선형의 평면적인 패턴(형상화된 두상과 손을 제외하고)으로 결합되어 있어 비록 이것이 전체적인 효과 면에서는 근본적으로 장식적인 것에 불과하겠지만 스토클레(Stoclet)벽화는 현대 회화의 비재현적인 면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다.<sup>38)</sup> 훈데르트바서는 위의 작품에서 도시 세 곳의 서로 다른 전차들과 자신의 상상력을 결합하고 있는데 붉고 파랗고 노란 전차들이 군집의 형태를 이루면서 공상적인 도시의 거리를 횡단하고 있는 것으로, 이 전차들은 기하학적

35) 송명숙, 전계논문, p.14.

36) Pierre Restany, *op.cit.*, p.18.

37) 송명숙, 전계논문, p.15.

38) 한순복(1993), 「구스타프 클림트의 회화세계에 관한 연구」, 성신여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9.

인 추상의 대용물들이며, 수직적이고 수평적인 불분명한 색상의 군집들이다. 훈데르트바서는 이 작품에서 클림트의 생동감 있는 배경을 같은 방법으로 연출하였고 클림트가 초상화에 템포와 리듬감을 주기 위하여 사용했던 ‘기하학적인 요소들’을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시도는 매우 성공적이어서 이 후에 등장하게 될 ‘나선형’의 한 전형이 되었다.<sup>39)</sup>

아르누보의 영향을 받은 훈데르트바서의 회화 작품은 전체적으로 직선이 없고, 선의 형태를 표현 할 때 같은 느낌으로 표현한 선의 형태가 없고, 인위적이고 기계적인 선의 형태가 없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또한 그의 작품에서 빼놓을 수 없는 형태 중 나선형과 동심원 형태의 나선형은 자연과 인간의 연결고리로 표현되어 자연에서 만들어진 인간은 죽어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를 상징하고 있다.

[표 3-3] 선으로 표현된 형태

모티브	형태

[표 3-4] 면으로 표현된 형태

모티브	형태

[표 3-3] 선으로 표현된 형태의 작품 첫 번째에서 표현된 선의 형태는 길과 초원, 하늘을 직선이 아닌 선으로 표현한 것을 볼 수 있다. 이선은 두꺼워지기도 하고 얇아지기도 하면서 인위적이지 않고, 기계적이지 않은 자연 스러움을 볼 수 있다. 두 번째 작품에서는 동심원의 형태를 갖는 나선형이 외각으로

39) 송명숙, 전계논문, p.16.

반복되면서 확대되는 형태를 하고 있다. 세 번째 작품은 나선형 모양은 훈데르트바서의 작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표적인 형태이다. 네 번째 작품의 나선형은 외각으로 나선형이 확장되는 형태를 하고 있는데, 처음엔 면으로 표현해 점점 확대되는 나선형으로 면을 나누고 있는 형태를 볼 수 있다.

[표 3-4]면으로 표현된 형태의 작품 첫 번째에서 보여지는 형태는 기하학적이다. 이 무늬 또한 훈데르트바서의 작품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창문의 자유를 표현하면서 나온 면의 형태이다. 첫 번째 작품에서도 그렇듯 이 기하학적인 무늬는 여러 번 반복하여 사용 된 것이 보여 진다. 하지만 반복에서도 똑같은 반복은 찾아 볼 수 없다. 훈데르트바서는 인간은 본인이 한번 그린 것을 절대적으로 똑같이 그릴 수 없다고 하였고, 그의 작품에서 또한 반복 되지만 절대적인 똑같은 모양은 없는 것이 특징이다. 두 번째 작품에서 보여지는 특징은 평면적이고 비입체적인 구성으로 다른 모양을 반복시키면서 일관성 있게 표현하여 작품의 흐름을 역동성 있게 만들었다. 세 번째 작품에서 보여지는 흔한 바둑판 모양에서도 훈데르트바서의 개성을 찾을 수 있는데 같은 바둑판 모양도 다르게 표현하여 작품의 재미를 더했다. 네 번째 작품은 여러 모양의 창문을 비입체적으로 표현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훈데르트바서의 건물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훈데르트바서는 창문을 에워싼 공간만큼은 스스로 만들 권리가 있고, 그 권리가 가져야 한다고 주장 했다. 이를 창문권이라고 불렀다. 한 사람이 창에서 팔을 뻗어 닿는 범위를 개인의 공간이라 했고 그 공간은 자신이 좋은 대로 만들어도 된다고 하였다.<sup>40)</sup> 같은 건물, 아파트나 다세대 건물의 똑같은 창문이 그 안에 살고 있는 세입자의 삶의 모양을 결정할 수 없다. 이것이 그의 건축이나 회화에 나오는 창문들이 비슷하지만 같지 않은 모양세를 하고 있는 이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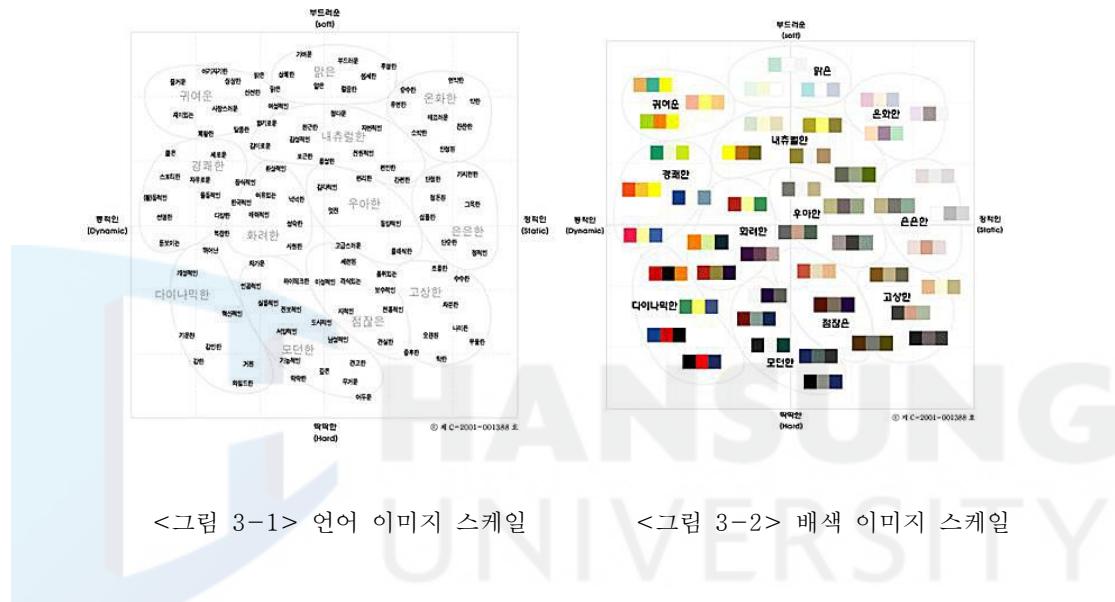
---

40) 바바라 슈티프(2010), 『꿈꾸는 나선의 예술가 행복한 훈데르트바서』, 김경연, 서울 :현암사, p.53.

### 제 3 절 훈데르트바서 회화 작품의 색채적 특성

#### 1. 이미지스케일을 통한 색채적 특성 분석

일본 색채연구소 고바야시의 언어 이미지 스케일<sup>41)</sup>과 배색<sup>42)</sup> 이미지 스케일



<그림 3-1> 언어 이미지 스케일

<그림 3-2> 배색 이미지 스케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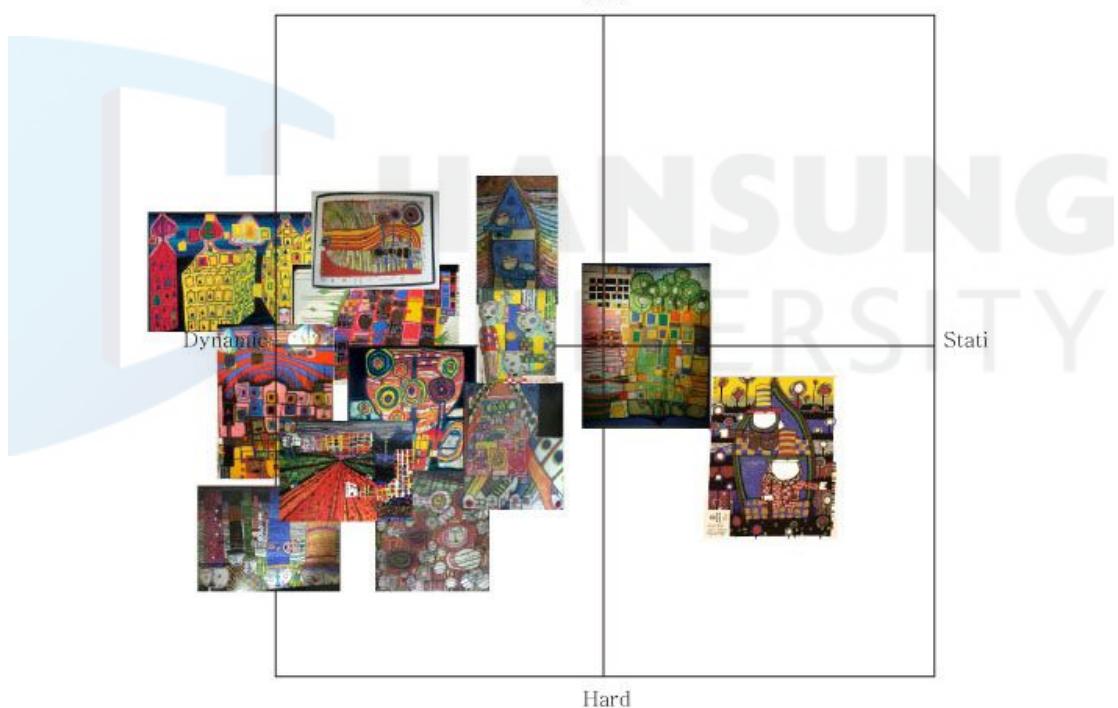
사람들은 색채에 대한 이미지를 말할 때, ‘귀엽다’ 혹은 ‘부드럽다’와 같이 형용사로 묘사한다. 색에 대한 사람들의 공통된 이미지를 형용사와 관련하여 척도화한 것이 형용사 이미지 스케일이다. 비슷한 의미의 형용사들을 묶어 카테고리를 만들게 되는데 각각의 형용사들은 하나의 점으로 파악되기보다는 형용사가 놓여 진 위치를 중심으로 그 의미가 점점 넓어지기도 하고 점점

41) 일본색채연구소의 디자인소장인 고바야시가 1987년 단일색채와 배색으로서의 색채에 대해 서 일반적인 이미지를 바탕으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감성을 체계화하여 보여준 것으로 흔히 ‘색채 이미지 스케일’이라고 한다.

42) ‘배색’이란, 두 가지 이상의 색이 서로 어울려서 하나의 색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효과를 일으키는 것을 말하는데, 배색의 조화에서는 색상, 명도, 채도의 차이가 중요한 요인이 되므로 색상대비, 명도대비, 채도대비가 배색에서 비중이 크지만, 일반적으로는 색상배색을 기준으로 조화를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

이선아(2004), 「한국 차(茶)문화공간의 감성적 색채 전략에 관한 연구 : 고유 브랜드 Cha&Gallery 색채계획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71.

약해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귀여운’의 경우 그 형용사가 놓인 부분이 가장 귀여운 느낌이 드는 정점이고 그 위치에서 점점 멀어지고 넓어질수록 그 느낌이 약해지는 것이다. WS (warm-soft) 면에는 편안함이, CS (cool-soft) 면에는 말고 깨끗함이, CH (cool-hard) 면에는 고급스럽고 딱딱함이, WH (warm-hard) 면에는 활동적인이 위치하고 있다. 배색 이미지 스케일은 이미지의 미묘한 차이를 표현할 수 있는 최소의 기본단위인 3색 배색을 이용하여 만들어졌으며 비슷한 느낌의 배색을 함께 묶어 각각의 그룹에 키워드(귀여운, 맑은 등)을 부여 한 후, 몇 개의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배색이 가진 특징을 알기 쉽도록 하고 또 그 느낌의 차이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였다.<sup>43)</sup>



<그림 3-3> 훈데르트바서 회화작품의 이미지 스케일

43) 국승채(2013), 「TV홈쇼핑의 상품유형 별 쇼 호스트의 스타일링과 배경화면 색채이미지와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47.

<그림 3-3>와 같이 이미지 스케일로 훈데르트바서 회화작품을 분석해 볼 때 색채적 특성은 Dynamic쪽에 많이 분포 되어 있음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고바야시 언어 이미지에 표현되어 있는 형용사로 정의해 보면 훈데르트바서의 회화작품은 ‘화려한’, ‘매력적인’, ‘복잡한’, ‘경쾌한’, ‘젊은’, ‘자유로운’, ‘선명한’, ‘다양한’, ‘돋보이는’, ‘뛰어난’, ‘개성적인’, ‘다이나믹한’, ‘혁신적인’, ‘고상한’ 등으로 정리 할 수 있다.

## 2. NCS를 통한 색채적 특성 분석

NCS는 오스트발트 표색계<sup>44)</sup>와 마찬가지로 독일의 생리학자 헤링(Edwald Hering)의 반대색설(4원색설)<sup>45)</sup>에 기초하여 다른 색체계가 빛의 강도를 토대로 색의 표기를 하는데 반하여 심리적인 비율척도를 사용해 색 지각 량을 표로 나타내었다. 물체의 색은 조명 광에 따라 변하지만, 물체나 조명에 관계없이 그 순간에 ‘보이는 색’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보이는 색이란 인간의 시각기관인 망막을 통해 뇌에 전달된 색자극을 통한 색을 말한다.<sup>46)</sup> 이런 NCS의 특징으로 지각되는 색 특성화가 매우 중요한 분야인 인테리어나 외부 환경디자인에 매우 유용하게 쓰이며 색의 지각 량을 문제로 하는 색채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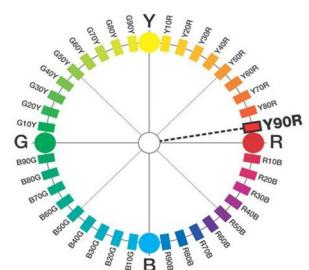
44) 오스트발트 색체계는 1919년 독일의 화학자인 F.W. 오스트발트가 창안한 표색계로 백, 흑, 순색의 혼합에서 각 함유량으로 표면색을 정량적으로 표시하기 위한 표색계를 말한다. 오스트발트는 색을 이상적인 흰색, 이상적인 흑색, 이상적인 순색으로 나누고, 회전혼색 원판에 의해 색을 표현했다. 각 색의 혼합량은 모두 100이 되게 된다. 하지만 혼합률을 백분율로 표시하지 않고, 백. 흑. 순색으로 하는 색입체를 만들어서 그것을 분할하고 각 구역에 붙인 기호로 혼합률을 대용하도록 했다. 즉, 색상을 24로 분할하여, 각 색상면은 백. 흑. 순색을 혼색해서 만들어진 색을 배치한 것이다. 오스트발트 색체계는 색배열의 위치로, 조화되는 두 가지 색을 찾기 쉽게 되어 있어 디자인 분야에서 많이 사용해 오고 있다. 하지만, 같은 기호의 색일지라도 색상에 따라서 명도 차이가 나는 단점이 있다. Roy Berns(2003), *『Principles of Color Technology』*, paris : Sigmapress, p.37.

45) 1874년 헤링이 발표한 반대색설(System of Color Opponency)은 빨강-초록, 노랑-파랑, 하양-검정의 세쌍의 반대색을 색의 기본감각으로 가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3원색설에 의하면 노랑은 빨강과 초록의 출력합성으로 이루어지지만 노랑에서는 빨강과 초록을 느낄 수 없다. 이렇게 보색 잔상은 3원색설에서는 설명할 수 없다. 헤링은 망막에 하양-검정 물질, 빨강-초록 물질, 노랑-파랑 물질이라는 세가지 구성 요소가 있다고 가정하고, 각각의 물질은 빛에 따라 동화(재합성)와 이화(분해)라고 하는 대립적인 화학적 반응을 일으킨다고 하였다. 동화는 검정, 초록, 파랑을 나타내고, 이화는 하양, 빨강, 노랑을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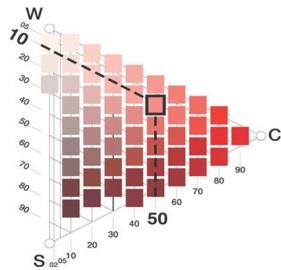
출처: 문은배(2011), *『색채 디자인 교과서』*, 서울 : 앤그라픽스, p.90.

46) 상계서, p.225.

리, 색채감성, 기억 및 시인성 등 각종 실험의 지표로 이용되기도 한다. NCS는 색을 표기할 때 크게 색상과 명도 채도로 나타낸다. 명도와 채도는 톤(Tone)의 개념으로 흰색도(W, 흰정도), 검정색도(S, 검은 정도), 유채색도(C, 색의 순수한 정도)를 의미한다.<sup>47)</sup>



<그림3-4> NCS 색상환



<그림3-5> NCS 색 삼각형

NCS에서의 색상은 색상환의 표준 색표 집을 기준으로 할 때 총 40개의 색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색상의 속성인 노랑(Y), 빨강(R), 파랑(B), 초록(G)을 심리보색의 원리에 따라 노랑-파랑, 빨강-초록을 반대편에 직교 배치하여 색상환을 구성한다. 그리고 각각 색의 속성 간을 10개 단위로 나눈다. <그림3-4>와 같이 NCS에서 색상은 유채색도(C)에 포함되는 4가지 원색의 혼합비로 표현된다. 예를 들어 S1050-Y90R로 표기된 색에서 색상에 해당되는 S는 NCS 색표집 제2판(second edition) 임을 나타내고, S 다음의 두 자리 수 2030은 검정색 기미 20%와 순색 기미 30%를 나타낸다. Y90R은 노랑(Y)과 빨강(R) 사이의 색으로, 노랑(Y)이 10%, 빨강(R)이 90%로 구성되어 있다. 명도와 채도는 흰색도(W, 흰 정도), 검정색도(S, 검은 정도), 유채색도((C, 색의 순수한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 NCS 색 삼각형에는 그 정점에 순수한 흰색 W, 순수한 검정색 S, 완전 순색 C가 배치되어 있다. NCS에서는 흰색과 검정 그리고 순수한 색의 지각적인 혼합비의 합을 항상 100이으로 하고 있다. 즉,  $W + S + C = 100\%$ 로 whiteness(흰색기), blackness(검정색기), chromaticness(순색기)의 합은 항상 100으로 가정한다. 이러한 경우 두 가지 속성을 알면 나머

47) 국승채, 전계논문, p.49.

지를  $W=100-S-C$  로 계산하여 알 수 있으므로, 명도와 채도에서 세 속성을 모두 표기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NCS에서는 흰색 량을 생략하고 검정색도와 유채색도로 나타낸다. <그림3-5>에서 S1050-Y90R로 표기된 색에서 명도 채도에 해당되는 1050은 10이 검은색도, 50은 유채 색도를 가리킨다. 여기서 흰색도는  $100-(10+50)=40$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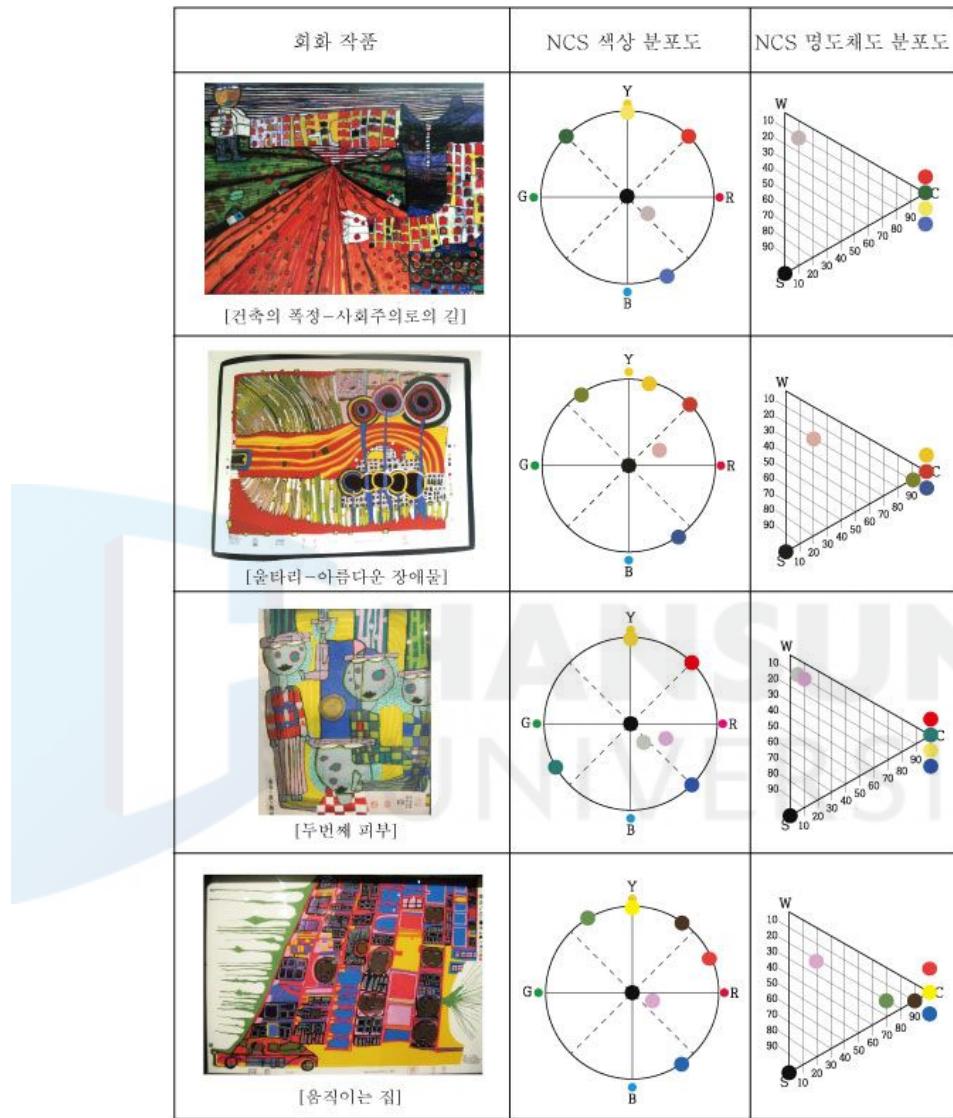
NCS에서 명도와 채도의 개념은 세 가지 속성, 10개의 영역의 구체적인 언어로 표현된다. 또한 흰색도와 검은색도 유채색도의 위치가 같은 색은 어떤 색상이던지 그 색이 갖는 명도와 채도가 같도록 설계하였다.<sup>48)</sup>

[표3-5]와 같이 NCS를 통해 육안측색으로 훈데르트바서의 회화작품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표3-5]의 첫 번째 그림의 색 값을 나타내 보면 SC-Y, SC-R70B, SC-G50Y, SC-Y50R, S1010-R40B, S-N로 쓰인다. SC-Y 명도와 채도가 완전한 원색이고, 다른 어떤 색도 섞이지 않은 노랑(Y)색이다. SC-R70B 명도와 채도가 원색이고, 파랑(B)색에 가까우나 빨강(R)가 30%섞인 파랑색을 뜻한다. SC-G50Y 위와 마찬가지로 원색을 표현하고, 빨강(R)색을 나타나는데 노랑(Y)색이 50% 섞인 빨강색을 사용하였다. S1010-R40B 명도가 높고 채도가 낮은 색이고, 빨강(R)색이 60%, 파랑(B)색이 40%섞인 붉은 빛이 조금 더 있는 보라색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블랙 S-N이 사용되었다. 두 번째 그림의 색 값은 S-N, S2020-Y70R, S1090-G40Y, SC-R60B, SC-Y20R, SC-Y50R로 S-N 블랙, 명도가 높고 채도가 낮은 S2020-Y70R은 빨강(R)색이 70% 노랑(Y)색이 30%섞인 연분홍색, 명도와 채도가 모두 높은 S1090-G40Y은 노랑(Y)색이 40% 초록(G)색이 60% 섞인 그런색을 사용하였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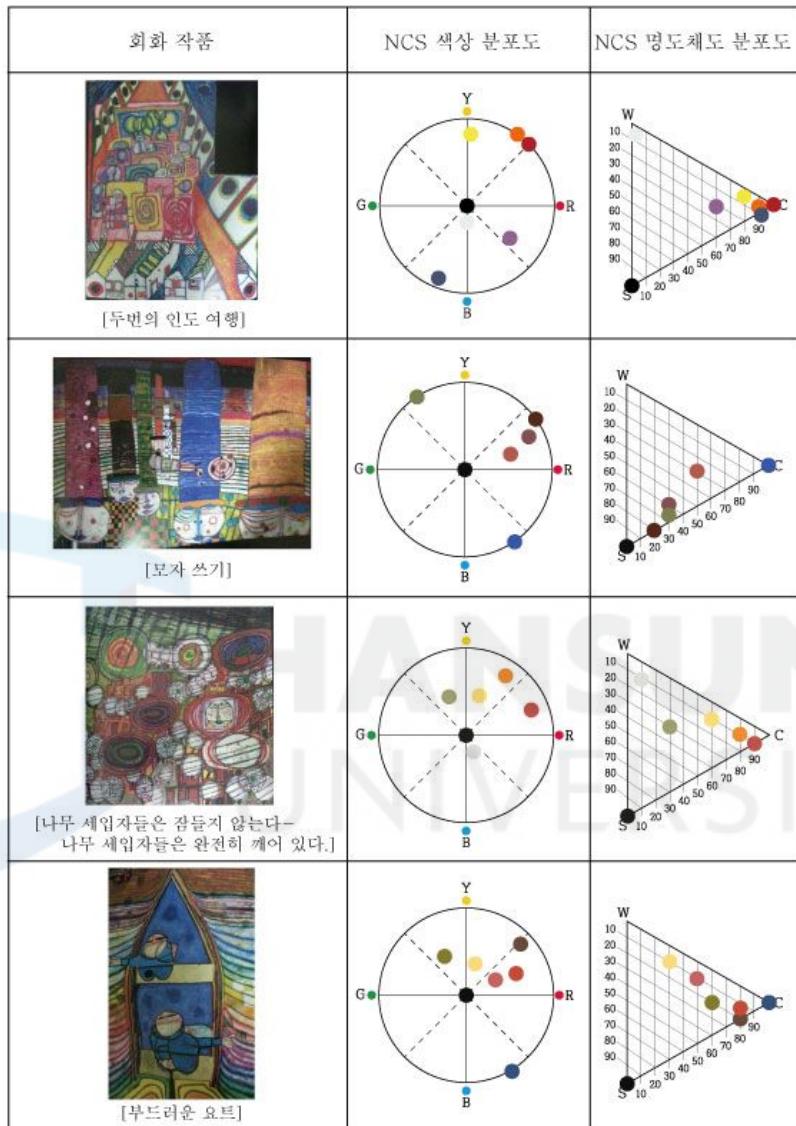
48) 국승채, 전계논문, p.50.

[표 3-5] 훈데르트바서 회화 작품의 NCS를 통한 색채분석①



SC-R60B, SC-Y20R, SC-Y50R 모두 명도와 채도가 높은 SC측 원색을 사용하였고 SC-Y50R, 빨강(R)색은 노랑(Y)색이 50% 빨강(R)색이 50% 섞인 선명한 레드, SC-Y20R, 노랑(Y)색은 빨강(R)색이 20% 섞여 약간 주황빛이 도는 노랑(Y)색을 사용한 것을 볼 수 있다.

[표 3-6] 훈데르트바서 회화 작품의 NCS를 통한 색채분석②



SC-R60B 파랑(B)색은 빨강(R)색이 40%섞여 힘 있고 묵직한 파랑색을 선택하여 작품에 블랙과 어우러져 채도가 높아 다소 가벼워 보일 수 있는 분위기를 무게감 있게 놀리 주었다. 세 번째 작품 역시 훈데르트바서의 작품 색채의 개성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먼저 색 값을 알아보면 S-N, SC-Y, SC-Y50R,

S1010-R30B, SC-B60G, SC-R50B, S0505-R70B이다. 검정(N)색인 S-N, 높은 명도와 채도를 표현한 SC원색에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노랑(Y)색, SC-Y50R, 빨강(R)색은 노랑(Y)색이 50% 빨강(R)색이 50%섞인 선명한 레드를 사용하였다. 명도가 높고 채도가 낮은 연한 핑크와 연한 파랑색도 사용하였는데, S1010-R30B 연한 핑크에는 색 값과 같이 파랑(B)색이 30% 빨강(R)색이 70%섞여 있고, 연한 파랑색은 S0505-R70B 색 값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연한 핑크보다도 더 명도가 높고 채도가 낮은 것이 숫자로 보여다. 파랑(B)색이 70% 빨강(R)색이 30% 섞인 연한 파랑색은 사용하였다. 빨강(R)색 SC-Y50R, 파랑(B)색 SC-R50B, 초록(G)색 SC-B60G 모두 명도와 채도가 높은 것을 볼 수 있고 원색을 사용하였다.

네 번째 작품의 색 값은 SC-Y, S-N, SC-R65B, S2070-G70Y, S1090-Y40R, SC-Y80R, S2020-R30B로 나타난다. 위의 세 작품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블랙, 원색 빨강(R)색 SC-Y80R, 노랑(Y)색 SC-Y, 파랑(B)색 SC-R65B이 들어가고 명도가 높고 채도가 낮은 S2020-R30B 연보라색은 파랑(B)색이 30% 빨강(R)색이 70%섞여 있어 붉은 감이 많이 도는 연보라색을 사용하였다. 명도와 채도가 모두 높은 초록색 S2070-G70Y와 갈색 S1090-Y40R에서 초록(G)색에 노랑(Y)색을 70%섞어 연두빛이 있는 초록색을 볼 수 있고, 갈색은 빨강(R)색이 40%, 노랑(Y)색이 60%섞인 진한 황토색 빛이 도는 갈색을 사용하여 작품에서 사람의 인종을 표현하였다.

[표3-6] 첫 번째 작품의 색 값을 내어보면 S-N, SC-Y50R, S1580-Y, S2060-R40B, S1090-B40G, S1090-Y40R, S0505-B으로 낼 수 있다. S-N 블랙을 사용하였고, SC-Y50R 노랑(Y)색 50% 빨강(R)색 50%가 섞인 원색 레드를 사용하였다. 노랑(Y)색의 색 값을 보면 S1580에서도 나타나듯이 높은 명도와 채도를 사용하였으나 완전한 원색은 사용하지 않았다. 완전한 원색 보다는 약간 명도가 15%낮은 노랑(Y)색임을 볼 수 있다. 보라색인 이색 상의 색 값은 S2060-R40B이다. 빨강(R)색 60% 파랑(B)색 40%가 섞인 보라색을 사용하였다. 이 작품의 파랑색의 색 값을 보면 S1090-B40G로 레드가 섞인 파랑색이 아니고 초록이 섞여 청록 빛이 도는 것을 볼 수 있다. 높은 명도와 낮은 채도로 무게감을 주었으며, 파랑(B)색 60%와 초록(G)색 40%가

섞인 청록색을 사용 하였다. 연한 파랑 빛의 화이트 느낌이 나는 색의 색 값은 S0505-B이고, 한 눈에 보아도 높은 명도와 채도를 사용한 것이 보인다. 주황색으로 보이는 색의 값은 S1090-Y40R이고, 높은 명도와 원색에 가까운 채도를 사용하였다. 노랑(Y)색이 60% 빨강(R)색이 40%섞인 주황색 계열을 사용 하였다.

두 번째 작품은 전체 적으로 낮은 명도와 채도를 사용 하였으나 그럼에도 다양한 색감으로 작품에 재미를 더했다. 두 번째 작품의 색 값은 S-N, S3050-Y80R, S6530-G60Y, S3050-Y80R, S6030-Y70R, SC-R60B으로 S-N 블랙을 사용 하였고, 밝은 갈색 빛이 도는 붉은색의 색 값은 S3050-Y80R이다. 명도와 채도는 30과 50을 나타내고, 노랑(Y)색 20% 빨간(R)색 80%가 섞인 갈색 계열을 사용 하였다. S6530-G60Y은 초록색 중에도 풀색에 가까운 색을 사용 했는데, 초록(G)색 40% 노랑(Y)색 60%가 섞인 다소 칙칙한 초록색을 사용 하였다. 이 작품에서 밝은 갈색과 진한 갈색을 볼 수 있는데 진한 갈색의 색 값은 S3050-Y80R이고, 노랑(Y)색 20% 빨강(R)색 80%를 사용한 붉은 감이 많이 있는 갈색을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S6030-Y70R의 색 값의 갈색은 노랑(Y)색이 30%, 빨강(R)색이 70% 섞인 색을 사용 하였다. 파랑색은 원색을 사용하였는데 색 값은 SC-R60B이고, 빨강(R)색 40%, 파랑(B)색 60% 섞인 색을 사용하였다.

세 번째 작품은 전체적으로 밝은 느낌의 색을 많이 사용하였지만 무채색인 검정(S-N)색을 넣어 작품에 화려함을 더했다. 밝은 색들의 색 값은 S1010-R80B, S3030-G70Y, S1060-Y10R, S1080-Y40R, S1090-Y80R이고, 흰색처럼 보이면서 약간의 하늘색이 도는 색의 값은 S1010-R80B이다. 높은 명도와 채도를 사용하였고, 빨강(R)색 20%, 파랑(B)색 80%가 섞인 것을 알 수 있다. 밝은 감의 초록색의 색 값은 S3030-G70Y이고, 명도 30, 채도 30, 초록(G)색이 30%, 노랑(Y)색이 70% 섞인 것을 알 수 있다. S1060-Y10R의 색 값을 보면 노랑(Y)색이 90%, 빨간(R)색이 10% 섞인 밝지만 원색보다 조금은 연한 노란색을 사용한 것을 볼 수 있다. 색 값 S1080-Y40R은 원색에 가까운 명도와 채도를 사용하였고, 노랑(Y)색 60%, 빨강(R)색 40%가 섞인 주황색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S1090-Y80R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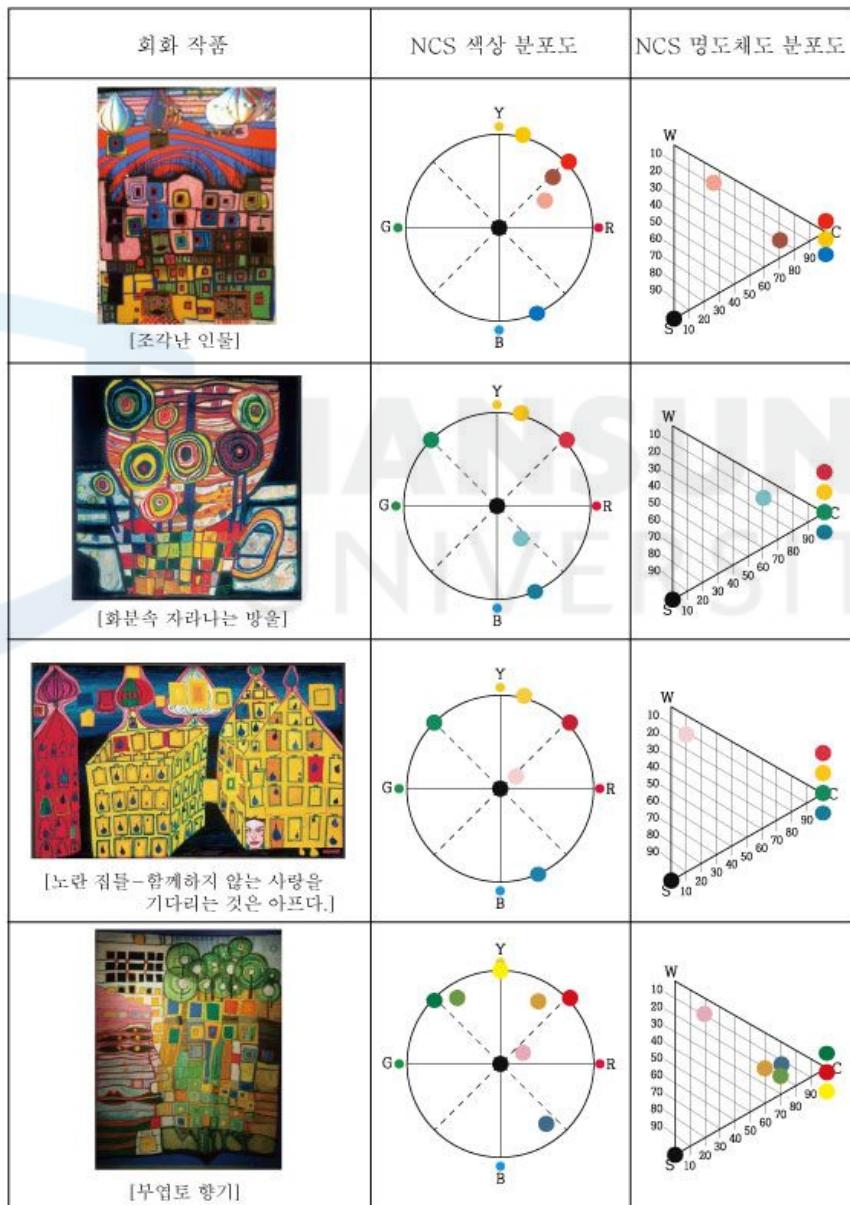
색 값은 주황색과 마찬가지로 원색에 가까운 명도와 채도를 사용 하였고, 노랑(Y)색 20%, 빨강(R)색 80% 섞인 붉은색을 사용 하였다.

네 번째 작품은 밝고 예쁜 파스텔 톤의 무지개 색을 사용 하였는데 표현되는 색 값은 S2080-Y50R, S1580-Y60R, S2060-G60Y, S1050-Y70R, S1030-Y10R, SC-R70B, S-N이다. S2080-Y50R색 값은 명도 20, 채도 80으로 무게감 있는 색이고, 노랑(Y)색 50%, 빨강(R)50%가 섞인 갈색임을 나타내고 있다. 초록색은 풀색 쪽으로 사용 하였는데, 다른 작품 보다는 파스텔 톤의 풀색인 것이 특징이다. 색 값으로 표현 하자면 S2060-G60Y이고, 명도 20에 채도 60, 초록(G)색 40% 노랑(Y)색 60%가 섞여 있다. 레드 계열은 빨강 보다는 주황에 가깝고, 색 값은 S1580-Y60R이다. 명도와 채도에서 알 수 있듯 선명한 주황으로 보여 지고 노랑(Y)색 40%, 빨강(R)색 60%가 섞인 것을 알 수 있다. S1050-Y70R색 값의 레드는 명도와 채도에서 파스텔 계열임을 알 수 있다. 노랑(Y)색 30%, 빨강(R)색 70%가 섞인 연한 빨간색을 사용 하였다. 연한 파스텔계열의 빨간색을 사용 했듯이 노란색 또한 파스텔 톤을 사용하였는데, 그 노란색의 색 값은 S1030-Y10R이고, 빨강(R)색이 10%섞인 연한 노란색을 사용 하였다. 이 작품에 원색은 파랑색으로 보여 지는데, 빨강(R)색 30%와 파랑(B)색 70%가 섞인 진한 파랑색이고, 이 파랑색의 색 값은 SC-R70B로 나타낼 수 있다. S-N은 앞의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검정색을 나타낸다.

[표 3-7]의 첫 번째 작품은 선명한 원색들과 경계 짓는 블랙이 눈에 들어오는데, 이 작품의 색 값은 SC-R75B, SC-Y10R, SC-Y50R, S2070-Y50R, S1025-Y60R, S-N로 나타낼 수 있다.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은 선명한 원색을 사용 하였는데, 파란색은 빨강(R)색 25%와 파랑(B)색 75%가 섞여 색 값은 SC-R75B로 보여 진다. SC-Y10R색 값의 노란색은 노랑(Y)90%에 빨강(R)색 10%가 섞인 원색을 나타내고, 빨간색의 색 값 SC-Y50R을 보면 노랑(Y)색 50%, 빨강(R)색 50%가 섞인 원색 빨간색을 사용 하였다. 갈색 빛이 나는 색의 색 값은 S2070-Y50R이고, 노랑(Y)색 50%와 빨강(R)색 50% 섞여 있는 갈색을 사용 하였다. 명도와 채도가 높은 핑크도 두드러지게 보이는데, 이 핑크의 색 값은 S1025-Y60R이고, 숫자에서 나타나듯 파스텔 톤이다. 노

랑(Y)색이 40%, 빨강(R)색이 60% 섞인 핑크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이 작품의 블랙(S-N)은 면적을 많이 차지하거나 면으로 표현 되지는 않았지만 공간을 나누는 역할을 하고 있다.

[표 3-7] 훈데르트바서 회화 작품의 NCS를 통한 색채분석③



[표 3-7]에서 두 번째 작품의 색 값은 S-N, SC-R75B, S1060-R60B, SC-G50Y, SC-Y10R, SC-Y50R로 보여 진다. 배경 전체가 S-N, 즉 검정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원색을 네모와 동그라미로 표현 하면서 작품의 화려함을 더했다. 이 작품에 표현된 원색 파란색의 색 값은 SC-R75B이고, 빨강(R)색 25%와 파랑(B)색 75%가 섞여 있는 진한 파란색을 사용 하였다. 빨간색의 색 값은 SC-Y50R이고, 노랑(Y)색, 빨강(R)색 각각 50%씩 섞인 원색의 빨간색을 사용 하였고, 노란색 또한 원색을 사용 하였다. 노란색의 색 값은 SC-Y10R이고, 빨강(R)색이 10% 섞인 원색의 노란색이다. 초록색 역시 원색으로 사용되었음을 볼 수 있고, 초록색의 색 값은 SC-G50Y이고, 초록(G)색 50%, 노랑(Y)색 50%가 섞여 있는 것이 색 값에서 보여 진다.

작품에 보여 지는 파스텔 톤의 연한 파랑색은 흰색과 같이 쓰여 져서 더 색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데, 색 값은 S1060-R60B이고, 빨강(R)이 40%, 파랑(B)색 60%가 섞여 있다.

세 번째 작품의 색 값은 S-N, SC-R75B, S1010-Y80R, SC-G50Y, SC-Y10R, SC-Y50R이고, 한눈에 원색을 많이 사용 한 것이 보인다. 원색 중에도 노란색의 비율이 높아 보이는데 이 작품에 많이 차지하고 있는 이 노란색의 색 값은 SC-Y10R이고, 빨강(R)색이 10% 섞여 있다. 빨간색의 색 값은 SC-Y50R이고, 노랑(Y)색, 빨강(R)색 각각 50%씩 섞인 원색의 빨간색을 사용 하였고, 이 작품에 쓰여 진 원색의 파란색은 배경에서 많이 보여 지는데 블랙(S-N)과 함께 사용 되어 화려함을 느낄 수 있다. 이 원색 파란색의 색 값은 SC-R75B이고 빨강(R)색이 25% 섞인 파란색을 사용 하였다. 초록색의 색 값은 SC-G50Y이고, 초록(G)색 50%, 노랑(Y)색 50%가 섞여 있는 색을 사용 하였다. 그리고 집 아래 창문에 눈에 띄는 사람의 얼굴색은 백인으로 보여 지는데, 이 백인 얼굴의 색 값은 S1010-Y80R이다. 노랑(Y)색 20%와 빨강(R)색 80%가 섞이고 명도 채도가 모두 높아 연한 주황빛을 나타낸다.

마지막 네 번째 작품에서 쓰여 진 색의 값은 S1570-R60B, SC-G50Y, S-N, S2060-Y30R, SC-Y, SC-Y50R, S1020-Y80R, S2070-G60Y이다. 다른 작품에 비해 주요색이 많이 들어가 풍부한 색감을 보여 주는 이 작품의

원색은 초록색, 빨간색, 노란색으로 보여 진다. 먼저 원색, 초록색의 색 값을 SC-G50Y 이고, 초록(G)색과 노랑(Y)색 각각 50% 씩 섞인 색을 사용 하였다. 빨간색의 색 값을 SC-Y50R 이고, 노랑(Y)색 50%와 빨강(R)색 50%가 섞인 빨간색 원색을 사용 하였다. 노란색의 색 값을 SC-Y이고, 색 값에서 나타나듯이 다른 색은 섞이지 않은 온전한 노란색으로 보여 진다. 작품의 왼쪽 건물에 창문과 사람 얼굴의 눈, 입술 등은 표현한 색은 검정(S-N)색이고, 높은 명도와 낮은 채도를 갖고 있는 색 세 가지의 색 값을 S1570-R60B, S2070-G60Y, S2060-Y30R 이고, 연한 군청색으로 보여 지는 S1570-R60B은 빨강(R)색 40% 과랑(B)색 60%가 섞여 있다. 풀색처럼 보이는 S2070-G60Y는 초록(G)색 40%와 노랑(Y)색 60%가 섞여 있고, 황토색의 색 값을 S2060-Y30R이고, 노랑(Y)가 70%, 빨강(R)색이 30% 섞인 색을 사용하였다. 사람 머리의 두건처럼 보여 지는 핑크색의 색 값을 S1020-Y80R이다. 명도와 채도 숫자에서 연한 색임을 알 수 있고, 노랑(Y)색이 10%, 빨강(R)색이 80% 섞인 색을 사용 한 것을 알 수 있다.

# 제 4 장 훈데르트바서 작품의 조형적 특성 분석을 통한 작품 연구 및 네일 디자인 제안

## 제 1 절 매니큐어에 관한 고찰

### 1. 매니큐어의 정의

네일(nail)이란 ‘손·발톱’, ‘못’ 또는 ‘징’이란 사전적인 말로 쓰인다. 매니큐어의 어원은 손을 의미하는 라틴어 ‘마누스(manus)’와 관리를 의미하는 라틴어 ‘큐라(cure)’에서 파생되었다. 매니큐어의 본래의 의미는 손을 치료하는 것 이었지만, 그 후 손을 아름답게 하는 손 관리를 의미한다. 즉, 손톱의 모양정리, 큐티클(cuticle)정리, 손 마사지, 팔리쉬 바르기, 네일아트 일러스트레이션등의 전 과정을 포함한 ‘손·손톱의 종합적인 손질 및 관리’를 뜻한다.<sup>49)</sup>

### 2. 매니큐어의 유래

5000년에 걸쳐 변화하고 있는 매니큐어는 손과 손톱을 청결하게 관리하고 치료의 의미를 갖는다. 매니큐어(Manicure)는 우리가 알고 있는 팔리쉬(Polish)의 색상이 아니라, 라틴어의 마누스(Manus) + 큐라(Cura)라는 손의 관리를 의미하는 말이다. 이는 손톱모양(Shape), 큐티클정리(Cuticle), 핸드 맷사지(HandMassag), 칼라링 (Coloring) 등의 포괄적인 뜻이라 할 수 있다. B.C. 3000년경 이집트와 중국의 상류층에서 최초로 네일 관리가 시작된 것으로 문헌에 전해진다.<sup>50)</sup>

B.C. 3000년 이집트 파라오 무덤에서 금으로 만든 매니큐어 셋트가 발견되었고, 바빌론이나 로마 시대에는 군사들이 전쟁터에 나가기 위해 손톱에 색을 칠할 정도로 남성들의 전유물로 등장하기도 했다. 또한 부를 상징하여 귀족층

49) 윤미선(2009), 「매니큐어 文化類型에 따른 治療와 表現技法에 관한 研究」,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4.

50) 이영순, 한영숙, 김은실(2000), 『네일관리학』, 서울: 고문사, p.9.

에 의해 번성하여 사회적인 지위를 기준 삼기도 하였다. B.C. 2000년경에 손톱을 보라색으로 코팅한 시녀 미라가 있었으며 또한, 관목에서 추출한 붉은 오렌지색 헤나를 손톱에 입혀 신분을 나타내기도 했다.<sup>51)</sup> 17C 인도에서는 여성들이 어려서부터 신분을 나타내는 표시로 네일 메트릭스(nail matrix)<sup>52)</sup>에 문신바늘로 물감을 주입시켜 손톱을 장식했다. 18C 로코코시대에 와서는 본격적으로 손톱 화장이 이루어져 귀족뿐만이 아닌 일반인들에게 인식되어 전 유럽에 확산되어졌다.<sup>53)</sup>

1800년대에 일반인들에게 대중화되기 시작하여 네일 끝을 뾰족하게 만드는 아몬드형 네일이 유행하였고, 염소가죽인 샤피스(chamois)를 이용하여 광택을 내기도 했다. 1830년에는 발 전문의사인 시트(Sitts)가 치과에서 사용되던 도구인 소독기능을 하는 오렌지우드스틱(orang wood stick)을 네일 관리에 사용했다. 1885년에는 네일 폴리쉬(polish)의 주원료인 필름형성제 니트로셀룰로즈(nitrocellulose)가 개발되었다. 1892년에는 미국에서 여성들에게 새로운 직업이라는 것으로 도입되었다.<sup>54)</sup>

1900~1910년에 메탈파일(Metal File)과 메탈가위(Metal Scissors)를 이용하면서 뉴욕 시에 설립된 플라워리(Flowerly)사로부터 사포로 된 파일이 제작되었으며 이것을 이용하여 네일 관리가 시작됨으로써, 유럽에서도 본격적인 네일이 시작되었다. 1925년에는 폴리쉬 산업이 본격화됨으로 대중화를 이루었으나 색상이 다양하지 않는 투명한 자연색 계통의 색을 요즘처럼 전체코트(Full-coat)가 아닌 슬림라인(Slim-line) 방법으로 손톱의 중앙에만 칼라를 바르기도 했다. 1930년대에는 흰색 폴리쉬를 시초로 하여 다양한 계통의 빨간색 폴리쉬가 출시되었고, 매니큐어에 필요한 큐티클 크림(Cuticle cream), 큐티클 리무버(Cuticle remover), 큐티클(Cuticle oil), 폴리쉬 리무버(Polish remover)가 개발되었다. 1935년에는 인조네일이 등장하였으며 미국 웨인베니아에서 시작돼 현재 77년의 역사를 가진 엠파이어 뷰티스쿨(Empire Beauty

51) 손정아(2013), 「한국·중국·일본의 매니큐어 문화적 관습의 유사성과 차별성 분석을 통한 네일 디자인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5.

52) 네일 메트릭스(nail matrix/조모)는 조근/네일루트 밑에 위치하여 손톱각질세포의 생산과 성장을 조절하고 혈관, 신경, 림프관이 분포한다. 조모가 손상을 입게 되면 손톱 성장에 저해가 되므로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영순 외(2000), 전계서, p.87.

53) 손정아, 전계논문, p.6.

54) 상계논문, p.10.

School)<sup>55)</sup>인 미용기관이 설립되었다. 1940년에는 빨간색 칼라를 Full Coat하는 것이 유행하면서 여배우들에 의해 네일 패션이 시작되었다. 또한 맨스 메니큐어(Man's Manicure)<sup>56)</sup>가 시작 되었다.

1957년에는 최초로 아크릴 네일(Acrylic nail)<sup>57)</sup>을 시행하였으며, 1957년 이후부터 패디큐어(Pedicure)가 등장하여 손뿐만 아니라 발에도 신경을 쓰기 시작한다.

1960년에는 찢어지고 깨지는 약한 네일을 보강하기 위해 실크(Silk)와 린넨(Linen)을 이용하였다. 1970년대에는 네일 접착제와 접착식 인조네일이 개발되었으며 강하면서도 자연스러운 네일을 할 수 있는 아크릴 네일이 본격적으로 행해지면서 네일아트의 문화가 미국에서 비로소 사랑받기 시작한다. 1980년대에는 네일 악세사리가 유행하면서, 후반에 네일 시장이 급성장 하였다. 1994년 독일에서는 라이트 큐어드 젤 시스템(Light cured system)이 등장하였으며, 미국에서는 네일 면허증 제도를 도입하였다.<sup>58)</sup>

1999년에는 아크릴릭에서 사용하는 아크릴 모노머가 금속성분이 많은 MMA (Methyl Methacrylate)라는 화학제품으로 인체에 해를 끼친다고 미국 식약청에서도 금지 시켰던 제품을 오딧세이 네일 시스템(Odyssey Nail System)<sup>59)</sup>이 MMA의 단점을 장점화하여 EMA(Ethyl Methacrylate) 제품 “오딧세이 네일시스템 오리지널 라인업”을 개발하였다.

2000년대에는 화려한 색채와 다양한 네일 디자인 아트가 제품의 다양화와 더불어 발전하고 있다. 현재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네일 리스트들로 인해 네일 문화는 뷰티산업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다.<sup>60)</sup>

55) Trang Nguyen(2012), Trang Nguyen 칼럼, 『뷰티신문 수』, 제133호, p.42.

56) 맨스 메니큐어(Man's Manicure) : 남성을 위한 메니큐어 서비스로 여성들이 받는 서비스와 동일하다. 단 칼라를 바르는 대신 영양제를 바르거나 광택을 내어 마무리를 한다.

57) 스컬프처네일(Sculptured nail)이라고도 불리며 아크릴릭 리퀴드(액체형태), 아크릴릭 파우더(가루형태)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것은 또 다른 인조 네일을 만들 수 있으며 굳으면 단단해지므로 굳기 전에 형태를 만들어야 한다.

58) 장석임, 장경자, 박미경(2003), 『네일리스트를 위한 네일아트』, 서울 : 정문각, p.19.

59) 오딧세이네일시스템(Odyssey Nail System)은 1999년 제품을 처음 출시하고, 올해로 13년 째 운영되고 있는 글로벌 네일 토털 프로페셔널 기업이다. 지난 2010년 텍사스 휴스턴에 1차 생산 공장 및 물류센터를 설립해 현재 전 세계 7개의 현지 법인 지사와 36개국 유통채널을 가지고 있으며, 200여명의 전 세계 에듀케이터들을 보유하고 있다.

60) 손정아, 전계논문, p.12.

## 제 2 절 제작의도 및 네일아트 재료 설명

### 1. 제작의도

색채의 마법사이자, 건축 치료사, 환경운동가인 오스트리아가 낳은 예술가인 훈데르트바서(Friedensreich HUNDERTWASSER)의 회화를 네일아트 작품의 모티브로 선택하였다. 특히 훈데르트바서 작품의 회화에 화려하고 과감한 색채와 나선형 및 사각형의 창문 문양을 분석하여, 여러 가지 종류의 소재와 기법을 적용해 인조 텁 위에 디자인 함으로써 네일아트 작품을 제안 하였다. 본 논문은 훈데르트바서의 회화 작품을 토대로 총 12가지의 네일아트 작품을 제안해 보려한다.

먼저 1994년에 만들어져, 오늘날 까지 꾸준하게 사랑 받고 있는 네일아트의 UV Gel을 이용한 표현기법으로 일러스트 기법과 엠보 기법을 이용하여 총 4 가지 작품을 제안 하였고, 1974년에 도입된 아크릴릭 시스템을 이용해 엠보 기법, 일러스트기법으로 아크릴로 작품을 표현하는데 있어 적합함을 알아보고, 4가지 작품을 제안 하였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선택한 네일아트 기법은 믹스미디어이다. 다소 생소한 이름의 믹스미디어는 재료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작품을 작업 하는 것인데, 생전 평소 작품을 만들 때 하나의 작품에 수채 물감, 유화 물감, 유성 팬, 아크릴, 템페라, 오일 금속 등 다양한 재료를 사용했던 훈데르트바서의 작품을 표현하기에 가장 적합한 네일아트 기법이라 생각 된다. 믹스미디어 역시 훈데르트바서 작품을 토대로 총 4가지 작품을 제안 하려 한다.

### 2. 네일아트 재료 설명

#### 가. UV GEL 네일 시스템

UV Gel은 현대 합성수지의 발달과 연구의 결과이며, 치의학 발달을 기초

로 한다. 이 수지는 고품질의 합성수지로 손톱의 길이를 연장하고 강도와 탄력을 주는 UV Gel의 주요성분이다. 인조 네일의 가장 현대적인 강화 기술이다. 이러한 UV Gel은 1994년 독일에서 최초 개발되어 네일 산업과 더불어 발달되어 왔다. 현재 UV로 Gel을 경화시키는 기술은 고급도장부분, 전자, 의료, 접착제등 여러 방면에 쓰여지고 있다. 의료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업용 Gel인 셈이다.<sup>61)</sup>

UV Gel은 시술 시 몸에 치명적인 화학촉매를 사용하거나 제거 시 아세톤을 사용하지 않는다. 현재까지 개발된 인조손톱 시술 방법 중 사람의 손톱에 해를 주지 않는 소재이다. 시술과정도 중요하지만, 제거 시 화학물을 사용치 않는 만큼 기술자의 실력과 노력이 필요하다.<sup>62)</sup> UV Gel은 아크릴의 리퀴드와 같은 촉매제가 없이 인체에 무해한 UV-A 라이트에 의해 라이트 리액티브 입자(light-reactive particles)가 증합<sup>63)</sup>반응을 하여 문자들이 응집과 더불어 굳어지면서 시술되어 진다. 액상의 아크릴 성분으로 태양의 자외선을 인위적으로 발생시켜(U.V Lamp)를 이용하여 고체, 즉 딱딱하게 만드는 것으로 놓도에 따라 묽기가 약간씩 다르다. Gel의 종류에는 Hard Gel과 Soft Gel, Soak-Off Gel로 나눌 수 있다.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 중인 Hard Gel은 손톱위에 시술시 점도가 높아 두껍게 시술되며 경화시간이 짧고 경화 시 단단하며 광택이 좋다. 시술시 파일 링이 필요하며 손톱 조임 현상이 있어서 불편함이 있다. 일반 젤의 점도를 낮춰 디자인을 쉽게 하기위한 Soft Gel은 충격에 쉽게 금(Crack)이 가는 현상이 있다. Hard Gel과 Soft Gel의 제거 방법은 드릴이나 파일을 사용해서 갈아 내야한다. 젤 시술 전 Base-coat 또는 Pre-coat등 표면을 매끈하게 만들어 마찰을 줄이면 쉽게 제거가 가능하나 lifting이 되거나 유지력이 약하다. 차세대 젤이라고 불리는 Soft Gel은 젤이

61) 이수진(2011), 「UV Gel을 이용한 네일아트 작품에 관한 연구」, 영산대학교 미용예술대학 원석사학위논문, p.4.

62) 상계논문 p.4.

63) 증합: 같은 화합물의 문자 2개 이상이 결합하여 문자량이 큰 다른 화합물이 되는 것. 천연의 고분자 물질 가운데 셀룰로오스·고무 등이나 합성 고분자는 모두 작은 화학적집단(단위화합물의 반복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단위 화합물은 모노머(monomer)라 하는데 이 단위체가 통계법칙에 따라 여러 개 결합되어 고분자 물질을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진 고분자를 중합체 즉 폴리머(polymer)라 하며, 중합체를 구성하고 있는 단위체의 수를 중합도라 한다. 이러한 중합체를 만들어내는 화학 반응에 대한 총칭

아세톤과 같은 용재류와 접촉 시 젤 내부의 연결고리가 끊어져 쉽게 제거 할 수 있도록 고안된 젤이다. 기존 젤의 문제점인 두께, 사용 편의성, 조임현상, 뜨거움, 파일링 등을 해결한 젤로 아세톤으로 쉽게 제거되며 얇게 시술된다. 손톱 조임현상이 없으며 시술시 파일링이 불필요하다. 다른 젤에 비하여 시술 시간이 짧으며 금이 가는(Crack)현상이 없고 시술 후 자연스럽다. 부드럽고 강해 손톱위에 시술시 이물감 없이 편리하며, 특히 폴리쉬 대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UV Gel은 아크릴릭 소재와 화학적으로 비슷한 밀도를 갖는 물질 이지만 젤은 별도의 카탈리스트(catalyst)인 응고제가 필요하다.<sup>64)</sup>

젤을 굳게 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라이트 큐어드 젤(light curedgel)과 노 라이트 젤(nolightgel)이 있다. 특수 광선이나 할로겐 램프의 빛을 사용하여 굳게 하는 것이 라이트 큐어드 젤이다. 노 라이트 젤은 광선이나 빛을 사용하지 않고 응고제를 스프레이(글루 드라이어 외에 엑티베이터)를 붓으로 바르거나 담궈 줌으로써 굳어지는 것이다. 손톱의 상태와 길이에 따라 두께를 조절 할 수 있다.<sup>65)</sup>

젤은 제조회사에 따라 한 단계 또는 세단계로 작업하게 되어져 있으며, 한 단계로 되어있는 것은 몇 번을 해도 한 가지 젤로 모든 작업이 가능하다.<sup>66)</sup> UV Gel의 특징은 화학성분이 아크릴릭 네일과 매우 흡사하나 응고를 도와주는 별도의 카탈리스가 필요하며 아크릴릭의 75% 정도의 강도를 가지며 오래 견디는 인조 네일의 하나로 서비스 절차나 방법이 아크릴릭과 비슷하다. UV Gel 네일은 시술 후 오랜 기간이 지나거나 햇빛에 노출이 되어도 누렇게 변색이 되지 않는다. 원래 화학물질은 자외선에 노출 되었을 경우 변색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색 용기를 흔히 사용한다. 작업시간이 단축되고 투명도가 좋으며 어떠한 인조 네일 보다 가벼운 장점이 있다.<sup>67)</sup>

UV Gel 네일은 시술 후 항상 자연스러움을 유지하고 깔끔한 손톱을 유지 시켜준다. 시술시 냄새를 유발하는 화학제품을 사용하지 않아 네일샵 실내에서 고객들에게 피해주는 일이 없다. 이는 아크릴 시술시 촉매 제인 리퀴드와

64) 홍지은, 김진이, 우미옥, 김효정, 이진용, 김문주(2004), 『네일테크닉』, 서울 : 훈민사, p.116.

65) 유숙희, 김영옥, 김희정 (2009), 『네일케어실무』, 서울 : 현문사.

66) 홍지은 외, 전계서, p.117.

67) 이수진, 전계논문, p.6.

같은 역할을 UV 라이트의 빛이 대신해주기 때문이다. 유럽에서는 미국의 네일 시장과 달리 아크릴 시술보다 UV Gel 네일이 보편적으로 시술되어지고 있다. 요즘은 미국 네일 시장도 UV Gel 네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아크릴의 유해성을 아는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은 UV Gel 네일이다. 인체에 해가 되는 연무 즉, 증기 등을 유발하지 않으며, Primer와 같은 Acid (산)을 사용하지 않는다. 중독성과 같은 독성이나 거친 제품 등의 사용으로 망가질 수 있는 손톱을 보호한다. UV Gel은 다른 분야에서도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품질이 낮은 젤은 다른 인조손톱 시술시 발생하는 유해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된다. 젤이 경화되는 과정에서 매우 강력하게 응집하여 다른 인조손톱 시술보다 높은 강도를 지닌다. 하지만 사람의 손에 해가 갈 정도로 무리한 힘이 가해 졌을 때는 깨어지기도 한다. 이는 손톱이 어떠한 부분에 걸려 젖혀졌을 때 손톱 밑 부분으로 보호하기 위함이다. 젤이 UV 램프에서 반응하면서 경화되는 과정에 분자들 사이의 공극이 없을 정도로 응집하며 이 때문에 어떠한 곰팡이균이 침투하거나 서식하지 못한다. UV Gel라이트는 휴면 스킨에 해가 되지 않는 UV-A빛을 사용하며 그 밖에 UVB, UBC등의 스킨트러블을 일으키는 빛을 사용하지 않아 사용방법과 사용시간을 잘 숙지하면 안전하다. 그러나 젤 네일은 UV이라는 높은 에너지원으로 반응시키는 방법 때문에 쉽게 떼어 낼 수 없는 단점이 있었다. 근래에는 많은 기술의 발전으로 조금씩 떼어내기 쉬운 제품들로 선보여 지기도 한다.<sup>68)</sup>

---

68) 이수진, 전계논문, p.8.



<그림4-1> 젤네일아트-마블



<그림4-2> 젤네일아트-컬러젤



<그림4-3> 젤네일아트-장미

출처:[http://cafe.naver.com/soobinacademy\\_강사.이양희](http://cafe.naver.com/soobinacademy_강사.이양희)



<그림4-4> 젤네일아트-장미와나비

#### 나. 아크릴릭 네일(Acrylic Nail)

네일아트란 네일 아티스트가 인체를 통해 내면의 이미지를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예술의 형태와 다양한 소재 표현으로 장식하여 미의 세계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영역이다. 예술 가운데 공간적인 형태의 시각적 예술품을 만들어내는 일을 조형예술이라고 볼 때 네일아트는 이미지를 형상화하는 조형예술의 한 분야인 것이다. 따라서 예술성을 추구하는 작품 의도에 있어 표현상의

어떠한 구속도 받지 않으며, 인체에 새로운 형태로 재구성하여 표현하는 실험적인 조형예술의 한 장르라고 할 수 있다.<sup>69)</sup>

우리가 흔히 부르고 있는 아크릴(acryl)이란 아크릴산 수지의 약어로서 정확히는 폴리메티릴레이트(polymethyle methacrylate)를 말하고 있다.<sup>70)</sup> 스컬프처드(sculptured) 네일은 액체 아크릴릭(liquid acrylic)과 파우더 아크릴릭(powder aclylic)제품의 혼합으로 만드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아크릴릭이라고 불려지고 있다. 이상 두 개의 물질은 쉽게 네일 모양으로 만들 수 있으며, 일단 미용을 하면 굳어진 다음에는 매우 단단한 인조 네일이 된다. 이와 같은 아크릴릭 네일은 자연 네일 위에 씌울 수 있음은 물론 인조 네일 위에도 가능하다. 네일의 보강, 연장, 변형시키는 데도 활용이 가능하고 물어뜯은 자연 네일의 수리나 낡아버린 네일을 수리하는 데도 사용된다.<sup>71)</sup>

아크릴릭(aclylic)은 리퀴드(liquid)와 파우더를 3:2의 비율로 섞어서 손톱에 얹으면 그것이 굳어서 견고하고 실용적인 손톱이 되는 것으로, 각종 컬러파우더와 리퀴드로 다양한 디자인 또한 연출할 수가 있다. 다양한 디자인을 좋아하는 일본 등에서 인기 있는 테크닉 중의 하나이다.<sup>72)</sup>

아크릴 재료의 종류에는 프라이머(Primer), 네일폼(nail form), 아크릴 리퀴드(acrylic liquid), 아크릴 파우더 (acrylic powder), 아크릴 브러쉬로 나눠 볼 수 있는데, 프라이머는 아크릴릭 제품을 손톱에 접착시킬 때 없어서는 안되는 것이므로 매우 중요한 절차이다. 프라이머(Primer)는 네일 표면에 있는 오일을 제거 하고 네일에 있는 세균을 죽이는 살균제 역할을 하는 일종의 산(acid)이다. 그러므로, 프라이머를 피부에 엎지르지 않도록 주의 해야한다. 화상, 가려움, 작열감, 물집 등을 유발 시킬 수 있다.<sup>73)</sup>

네일폼(nail form)이란 아크릴릭 네일을 할 때 인공손톱을 만드는 토대가

69) 최지나(2000), 「꽃 이미지의 아트 메이크업」, 『한국인체예술학회지』, 제1권, 한국인체예술학회, p.148.

70) 이은경, 이애순, 박선희, 황선순, 박규미, 김남희, 명은진(2007), 『Professional 네일 아트』, 서울 : 광문각, p.141.

71) 이희경(2012), 「아크릴릭 네일아트 기법을 이용한 손의 상징성에 관한 연구」, 영산대학교 미용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5.

72) 주란(2003), 「여대생의 얼굴 화장과 손톱 화장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21.

73) 김영미, 서동균, 박지영(1999), 『NAIL TECHNOLOGY』, 서울 : 고문사, p.129-130.

되는 틀이다. 네일 폼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말발굽형(Horseshoe), 알루미늄 고리가 달린 플라스틱형(살균처리 후 재사용 가능함, 롤 위에 알루미늄형(살균처리 후 재사용 가능함), 테미테일러형(Tammy Taylor)4가지 종류가 있다.<sup>74)</sup> 종이로 된 발발굽형(Horseshoe), 테미테일러형(Tammy Taylor)을 보편적으로 사용한다. 접착성이 있는 폼의 뒷종이를 벗겨내고 손가락 끝에 종이 폼을 끼워 완전히 구부려서 C커브 모양을 만들어 사용 한다.<sup>75)</sup>

아크릴리퀴드(acrylic liquid)는 아크릴파우더와 혼합하여 아크릴 파우더가 동그랗게 만들어져서 원하는 모양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용액이다. 휘발성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뚜껑을 꼭 닫지 않으면 금방 공기 중에 증발되어 아크릴리퀴드가 사라지니 사용할 양을 디펜디쉬(Dappen dish)에 넣어서 사용하며 뚜껑을 닫아서 보관하여야 한다.<sup>76)</sup>

아크릴파우더는 아크릴리퀴드와 혼합하여 아크릴 볼을 만들 수 있는 미세한 입자가루이다. 클리어, 핑크, 화이트 등 다양한 컬라가 있어, 기술적인 부분 뿐만 아니라 아트적인 요소를 나타내는데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브러쉬 앞부분은 프렌치 스칼취의 경우 스마일 라인을 표현할 때 또는 일반 아크릴릭 사용 시 큐티클 라인 등을 처리 할 때 용이하게 사용되는 부분이다. 디자인 스칼취의 경우는 꽃과 같은 세세한 디자인을 표현하고자 할 때 많이 사용된다.<sup>77)</sup>

브러쉬의 대부분은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거나 아크릴릭의 부드러운 연결을 원할 때 많이 사용된다. 탁탁 두드려주는 작업이나 부드럽게 쓸어내려주는 작업을 통해 사용된다. 브러쉬의 끝부분은 볼을 펴줄 때나 디자인 작업 시 힘주어 표현할 때, 아크릴릭의 건조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때 브러쉬의 결을 살려서 표현할 때 용이하다. 브러쉬의 사용 후 보관시 이 부분의 이물질을 완벽히 제거하여 브러쉬의 갈라짐 현상을 최소화 할 수 있다.<sup>78)</sup>

74) 김영미 외 2인, 전계서, p.131.

75) 이희경, 전계논문, p.6.

76) 상계논문, p.6.

77) 상계논문, p.6.

78) 김동연, 김효영, 노지운, 이소녕, 임희아, 장형화(2006), 『Beauty stylist Nail art book』, 서울 : 삼성북스, p.136-137.



<그림4-5>아크릴릭 네일아트-사쿠라



<그림4-6>아크릴릭 네일아트-장미

#### 다. 믹스미디어(MixedMedia)

믹스 미디어는 여러 가지의 기법과 재료를 혼합하여 네일아트의 재료 이외에 오브제를 사용하여 다양한 기술로 조형되어 표현하는 예술 작품들이다. 이 때 사용되어진 재료로는 아크릴 물감, 아크릴릭 컬러 파우더, 에어브러쉬 물감, UV 칼라젤, 스톤<sup>79)</sup> 등을 사용한다.

79) 인조보석으로 ‘큐빅’이라고도 한다. 오렌지 우드 스틱(Orangewoodstick)을 이용하여 네일 표면의 원하는 곳에 크고 작은 다양한 색상과 모양을 붙여 주는 방법으로, 표현하기 쉽고 광택이 화려한 것이 특징이다. 네일아트 기법 중 핸드페인팅, 에어브러쉬, 마블, 프렌치 디자인 등 평면아트와 함께 붙여서 포인트를 주어 디자인하거나, 스톤 자체만으로도 무늬를 나타내어 화려하고 아름다움을 연출할 수 있다.



<그림4-7>믹스미디어-피노키오



<그림4-8>믹스미디어  
2011 도쿄 네일 엑스포 출품작



<그림4-9>믹스미디어-크리스마스

### 제 3 절 훈데르트바서의 작품 분석을 통한 네일 디자인 제안

#### 1. 작품①

재료 : UV 젤

기법 : 핸드페인팅 기법, 3D, 엠보

해설 : 작품①은 훈데르트바서가 1982년 뉴질랜드에서 그린 그림으로 주황색과 초록색으로 놓여진 길과 동그란 나선형들이 눈에 들어오는 이 작품의 제목은 <건축의 폭정-사회주의로 가는 길>이다. 건축의 직선에 의해 생겨난 추함의 폭정에 대한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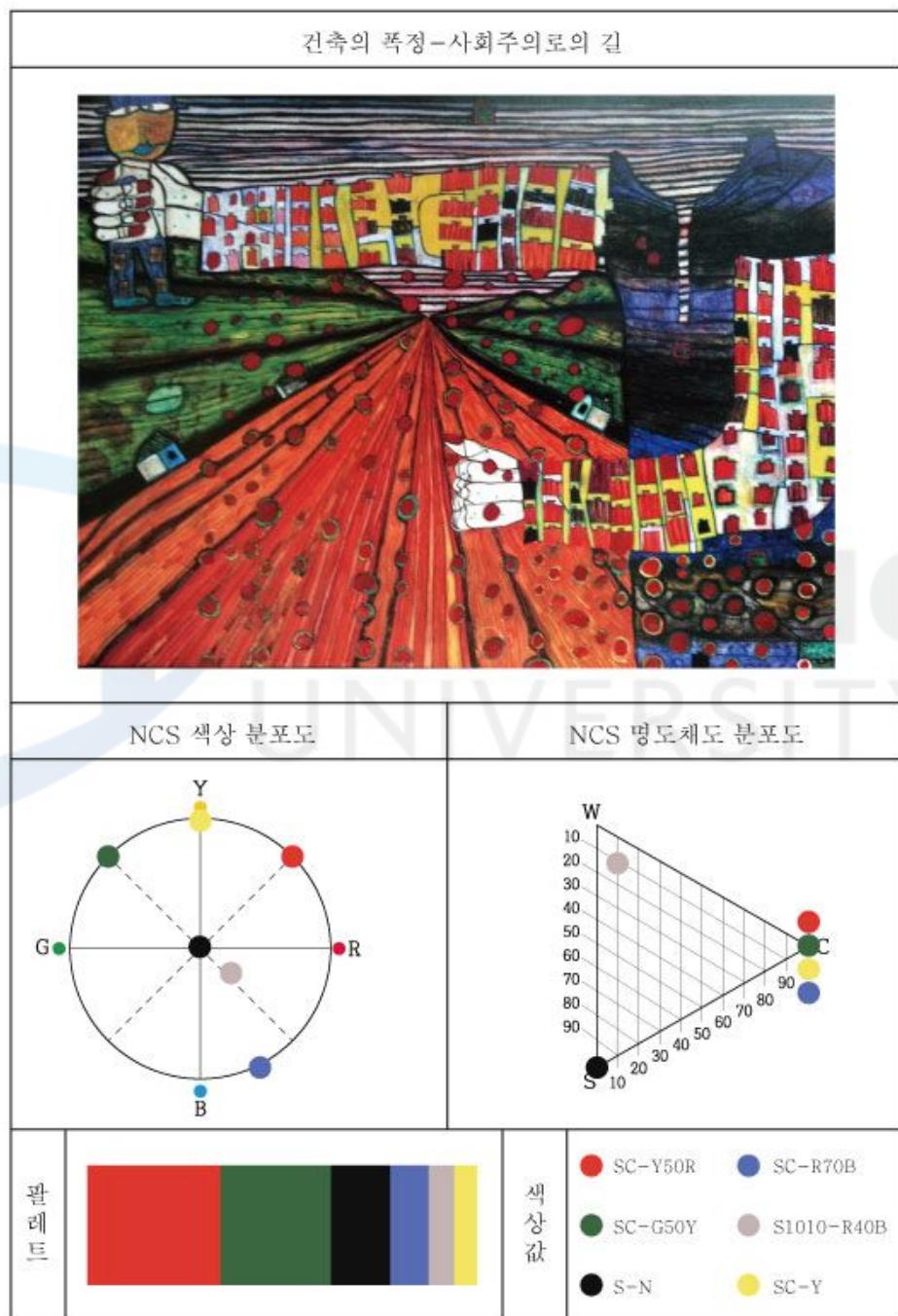
직선을 혐오했던 훈데르트바서의 회화 작품 중 언뜻 보기에도 직선이 많이 보여지는 작품이지만 이 직선 역시 자세히 보면 선이 두꺼워지고 얇아지기를 반복하며 울퉁불퉁 표현되었으며 초록색의 불규칙한 원형이 반복되어 직선의 느낌을 상쇄시키고 있다.

동일한 계열의 색상에서도 다양한 명도와 채도를 보여주는 훈데르트바서 회화의 색채의 특징을 살려 주황색과 노랑색으로 길을 표현하고 동그란 초록색의 나선형을 매치하여 5개의 인조 텁에 젤을 이용해 핸드페인팅 느낌으로 그려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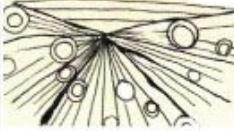
동글한 초록색의 나선형은 입체적인 포인트를 주기 위해 위에 클리어 젤을 올려 볼록하게 엠보를 주어 훈데르트바서 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나선형의 모티프를 부각시켰다. 얼굴 없는 몸체에 반복적으로 많이 그려져 있는 창문과 손에 잡혀 있는 인형의 얼굴, 그리고 주황색 길에 그려져 있는 집을 포인트로 하여 3D로 만들어 디자인 되어있는 인조 텁에 글루를 이용해 접착하였다.

색의 쓰임은 원색인 주황색, 초록색, 노란색, 파랑색을 사용하였고, 무채색인 블랙과 연보라색을 사용해 훈데르트바서 회화의 원색의 색채적 특징을 재현하였다.

[표 4-1] 작품① 색채분석



[표 4-2] 작품① 작품제안

모티프	응용모티프	색채제안
		
		
		
		
작품제작		
		

## 2. 작품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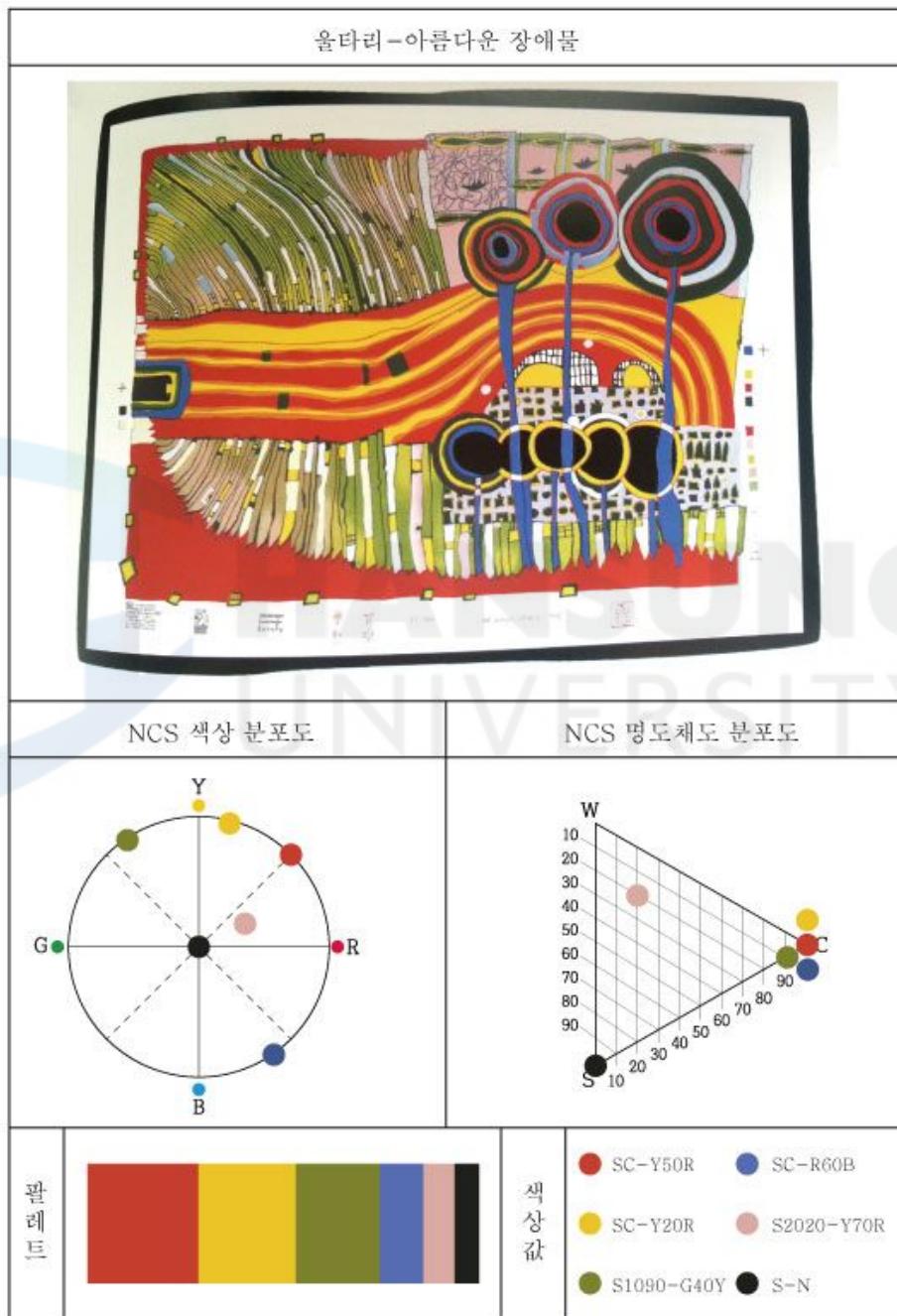
재료 : UV 젤

기법 : 핸드페인팅 기법, 3D

해설 : 작품②의 제목은 <울타리-아름다운 장애물>이다. 화사한 색감의 노란색과 주황색이 길을 만들며 늘어뜨려져 있고, 왼쪽으론 초록색과 노랑색이 어우러져 마당 앞의 작은 울타리를 표현해 낸 듯이 포근해 보인다. 오른쪽에 훈데르트바서의 특유의 표현기법의 사람 얼굴들과 창문이 울타리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연상케 하고, 원색과 블랙을 사용하여 몇 개씩 겹쳐진 나선형은 나무처럼 표현되어 이 작품의 화려함을 결정짓는 큰 역할을 한다.

이 회화에 주로 사용된 주황색과 노란색을 인조팁 두 개에 길을 젤을 이용해 핸드페인팅 기법으로 표현하였고, 작은 울타리 모양도 회화에서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텁에 핸드페인팅 기법으로 표현하였다. 그리고 이 회화에는 조금은 작은 면적으로 차지하는 사람모양의 얼굴과 창문을 인조팁 3개에 표현하였는데, 회화에서 보여지는 연한 핑크보다 요즘 유행하는 핫핑크로 선택하여 얼굴을 표현해 보았다. 그리고 반복적이면서도 같지 않은 창문도 얼굴색과 동일하게 핫 핑크 배경으로 하여 작품의 일관성을 유지 하였다. 마지막으로 나선형 모양의 나무를 나선형만을 3D로 원의 형태를 만들어 포인트를 주었고, 디자인 되어있는 인조 텁에 글루로 접착시켰다. 이때 칼라 젤 뿐만 아니라, 글리터 젤을 이용하여 글리터의 빛 반사로 인해 배경색인 핫 핑크와 상대적으로 낮은 채도의 컬러 군이지만 고급스러운 이미지로 모티프의 이미지를 더 부각 시켰다.

[표 4-3] 작품② 색 채분석



[표 4-4] 작품② 작품제안

모티프	응용모티프	색채제안
		
		
		
		
작품제작		
 <p>W. FELDT. S. SAUSALITO.    AN. DONOVAN. M. MME POMPIDOU    L. FLINKER. LEOPOLD SEDAR SENGHOU    ÖDER. SONNENSTERN. HBL.    Y. HERSCHEL CHIP.    STE. ELFI SEMOT.    O. CARDAZ. RIN.    HEINZ S.    K. OLAF.    SIR PAUL.    CLAUDIA. FAL.    HUBER. PEKY GROUT COURSE.    ZIA.    KIA SQUIRE.    K. JOANNA.</p>		

### 3. 작품③

재료 : UV 젤

기법 : 핸드페인팅 기법, 3D, 엠보

해설 : 원색의 느낌이 강한 이작품의 제목은 <두 번째 피부>이다. 두 번째 피부가 의복이라고 표현했던 훈데르트바서는 제 2의 피부는 제 1의 피부와 직접적인 동질성의 관계를 즐긴다. 제 2의 피부는 제 1의 피부의 사회적 지위를 체현하는 것이다. 그러나 제 2의 피부는 동시에 사회조직의 동일한 정체성 현상에도 개방적인 접근을 유지한다. 단체, 그룹, 정당, 민족, 또는 국가가 국기부터 시작하여 특정한 정체성 표정으로 스스로를 인식할 수 있는 것<sup>80)</sup>이라고 주장했다.

이 회화는 전체적으로 노란색을 주조색으로 사용하고, 사람을 하늘색으로 표현하였는데, 작품의 이미지가 노랑 원색의 색채와 사람모습의 기하학적인 형태의 표현으로 어린아이의 그림같은 천진난만한 모습이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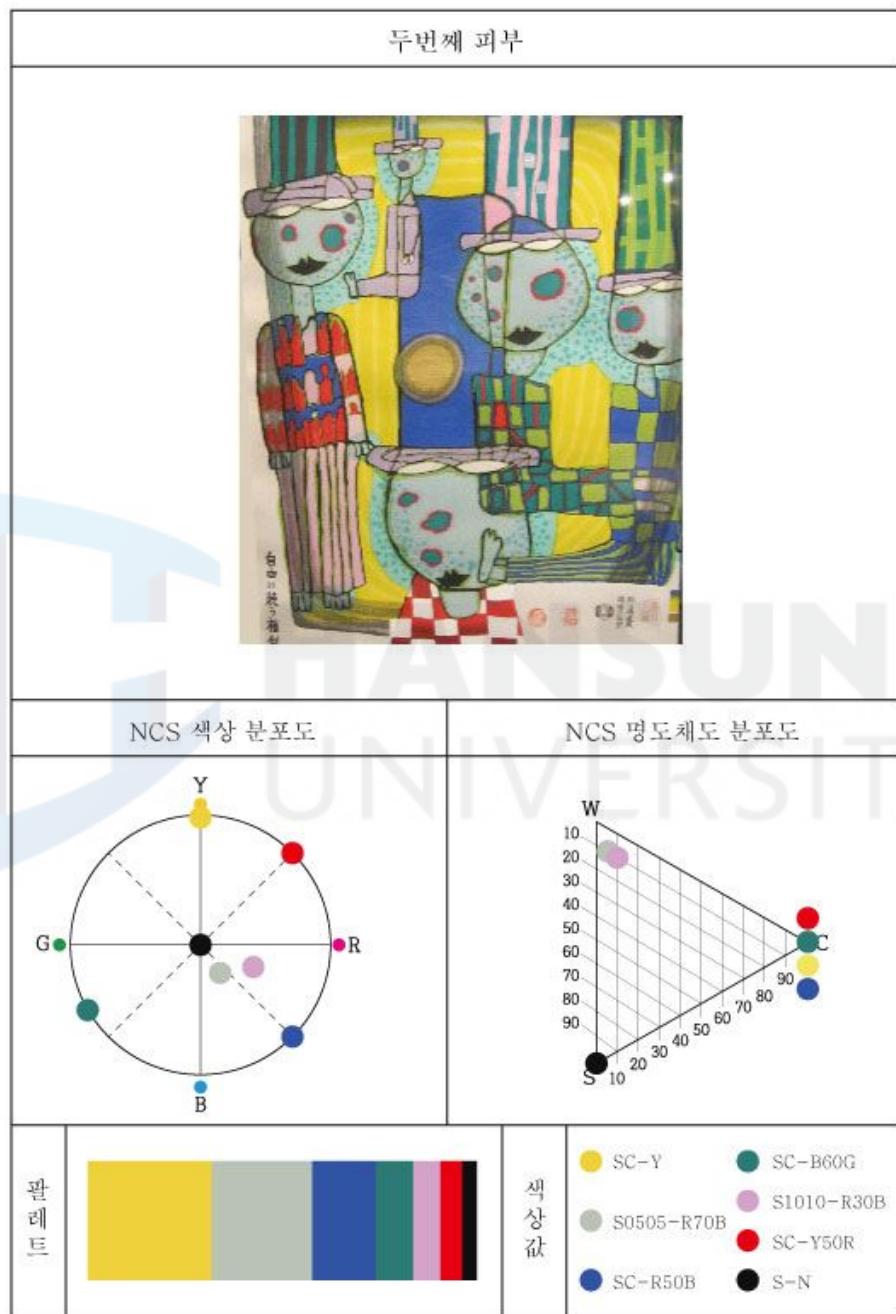
연구자도 <두 번째 피부> 작품의 유희적인 조형성을 표현하고자 제안한 네일 작품에서 사람의 색인 하늘색을 주조색으로 사용하였고, 작품의 배경색인 노란색을 텁 하나에 전체적으로 배색하여 포인트를 주어 작품에 재미를 더했다. 그리고 옷으로 표현된 기하학적인 창문무늬와 바둑무늬의 모티프를 차용하여 텁 세 개의 무늬를 디자인 하였고, 이 디자인에는 프렌치기법을 이용하여 표현해 보았다. 3D는 사람얼굴을 입체적으로 넣어주고 모자위에 장식처럼 그려져 있는 나선형에 클리어 젤을 이용해 엠보를 넣어 포인트를 주었다.

주가 되는 색은 바꿔서 표현하였으나 원색적인 느낌과 높은 명도와 채도를 사용한 색감에 무채색을 더하여 화려함을 준 훈데르트바서의 특징을 살려 작품을 디자인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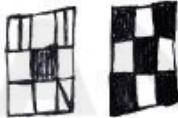
---

80) 피에르 레스타니, 전계서, p.39.

[표 4-5] 작품③ 색채분석



[표 4-6] 작품③ 작품제안

모티프	옹용모티프	색 채제안
		
		
		
		
작품제작		
		

#### 4. 작품④

재료 : UV 젤

기법 : 핸드페인팅 기법, 3D

해설 : 왼쪽아래 핑크색 자동차가 인상적인 이 작품의 제목은 <움직이는 집>이다. 발상의 재미가 돋보이는 이 작품은 자동차도 집으로 표현한 훈데르트바시의 건축 사랑이 느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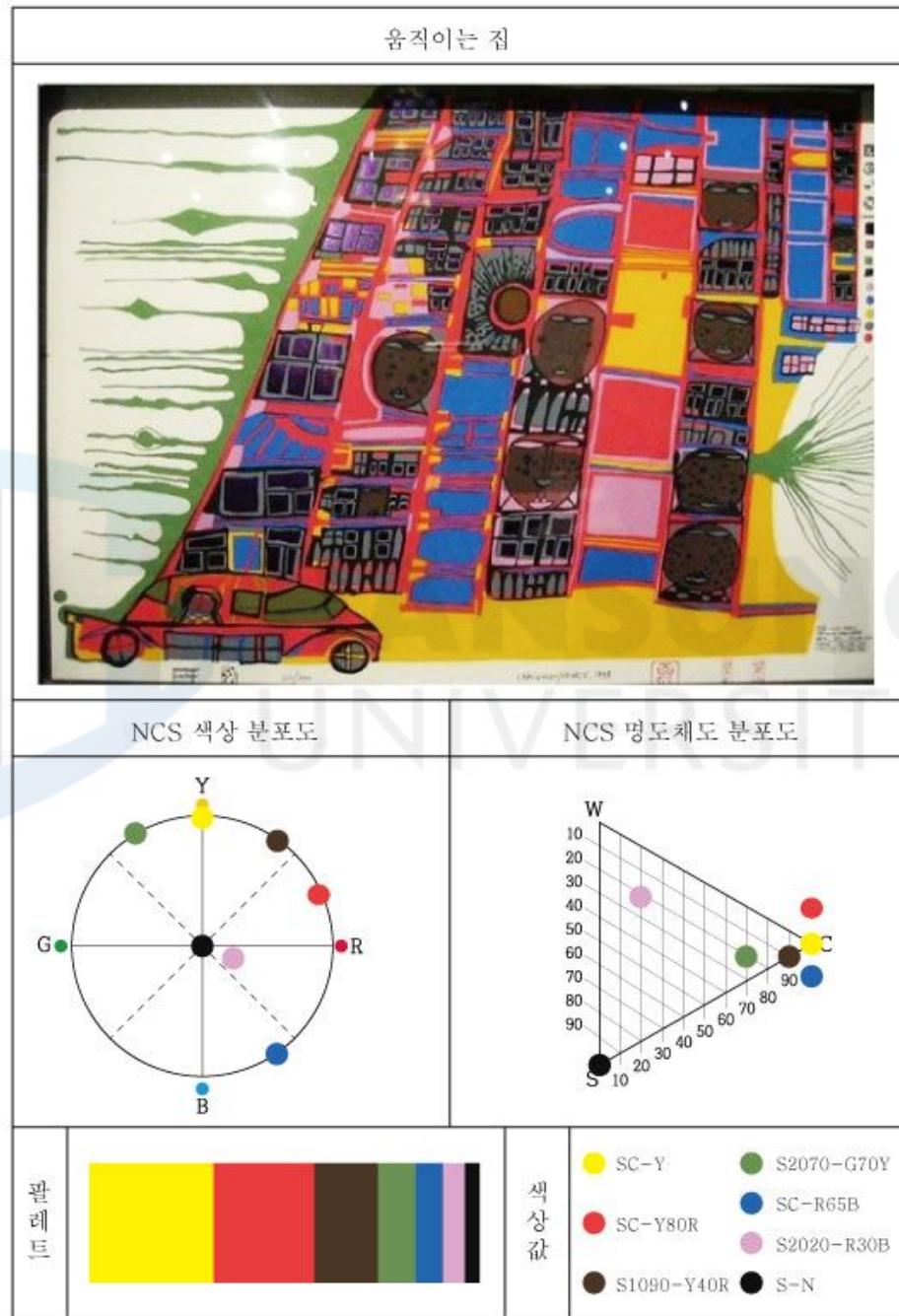
자동차와 아파트 같은 느낌의 집을 사각형으로 면 분할하여 현란한 원색과 무채색인 블랙으로 표현함으로써 작품의 화려함을 더해 훈데르트바시 회화의 특징을 그대로 나타낸 작품이다.

왼쪽과 오른쪽에 풀색으로 스피드를 표현한 것을 마치 하얀 꽃이 뿌리를 내려 피어있는 것처럼 보인다.

본 연구자가 제안한 네일 작품의 텁에도 왼쪽과 오른쪽에 풀색에 하얀 꽃이 핀 듯한 모티프를 그려 표현했고, 사각형으로 면 분할이 된 아파트에 있는 풍경 중 재미난 문양을 선택하여 텁 세 개에 젤을 이용해 핸드페인팅 기법으로 그려 보았다.

다소 복잡해 보일 수 있는 다양한 모티프 사용을 텁 하나에 채도가 높은 노랑색을 넓게 사용하여 안정감을 주었으며 가장 인상 깊게 표현되어있는 자동차를 모티프로 하여 3D로 만들어 작품에 생동감을 잃지 않게 디자인 하였다.

[표 4-7] 작품④ 색채분석



[표 4-8] 작품④ 작품제안

모티프	응용모티프	색채제안
		
		
		
		
작품제작		
		

## 5. 작품⑤

재료 : 아크릴릭

기법 : 2D 아크릴스캡춰, 엠보

해설 : 1975년에 그린 작품⑤의 제목은 <두 번의 인도 여행>이다.

훈데르트바서는 표현과 아이디어가 풍부해지고, 많은 우정을 얻었으며, 진귀한 자연이 펼치는 연극을 볼 수 있었다. 훈데르트바서는 여행을 하면서 그림을 그렸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체험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게 했다.<sup>81)</sup> 인도에서 그린 이 작품은 인도의 색채의 영향을 받은 듯하다.

훈데르트바서의 풍부한 색채감각은 그가 여행을 통해 얻은 그 나라의 이미지를 본인만의 색채로 풀어낸 다양한 작품들을 통해 훈련되어진 것 같다. 인도의 고풍스럽고 에스닉한 색상이 유기적인 문양들 사이에서 잘 표현되어 있다.

본 연구자의 네일작품은 <두 번의 인도 여행> 회화 작품 특징에서 벗어나지 않게 색채를 구성하여 사용하였으나 원색보다 명도와 채도를 조금 낮게 사용하여, 선이 순환하는 듯한 나선형의 장식적인 문양을 살렸다.

나선형을 세 개의 팁에 디자인 스캡춰 기법으로 디자인 하였고, 아랫부분에 보여지는 집 모양을 팁 위에 엠보를 주어 입체적인 포인트를 주었다. 그리고 집모양에 표현된 창문을 팁 위에 디자인해 다섯 개의 인조 팁을 완성시켜보았다. 아크릴의 특성상 선명하고 또렷함은 내지 못했으나 여러 색상의 칼라파우더는 훈데르트바서 작품으로 네일아트 디자인을 하는데 무리가 없어보였다.

81) 바바라 슈티프(2010), 전계서, p.77.

[표 4-9] 작품⑤ 색채분석



[표 4-10] 작품⑤ 작품제안

모티프	옹용모티프	색 채 제안
		
		
		
작품제작		

## 6. 작품⑥

재료 : 아크릴릭

기법 : 2D 아크릴스캡춰, 3D, 엠보

해설 : 모든 인간은 자신을 왕처럼 여겨야 하며, 그만큼 아름답고 중요하고 세상에 대한 책임감에 차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는 왕이다. 스스로에게 왕관을 씌워 주었다. 비탄의 골짜기보다는 부유한 여왕과 풍요로운 골짜기에서 사는 것을 좋아한다. 그렇게 되면 멀리 다른 왕국이나 낙원을 찾아갈 필요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서로 가까운 이웃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sup>82)</sup> 훈데르트바서는 모자를 현대의 왕관으로 여겼다. 모자는 왕관처럼 사람의 키를 더 커보이게 하고 중요성을 부여한다<sup>83)</sup>고 생각하였다. 좋아하는 것을 회화 작품으로 담아낸 것이 많은데 작품 ⑥ 또한 본인이 좋아하던 모자를 모티브로 제작하였고, 1982년에 그려진 이 작품의 제목은 <모자 쓰기>이다. 전체적으로 훈데르트바서의 다른 작품에 비해 낮은 명도와 채도를 사용하였고, 원색인 파란색을 중심부분에 넓은 면의 모자에 채색하여 포인트를 주었으며 블랙, 레드로 라인을 표현함으로써 통일감을 주었다.

훈데르트바서가 현대의 왕관으로 표현하고자 했던 이 작품에서 중요한 모자를 모티브로 텁 전체 모양을 모자로 만들어 통일감을 주었고, 각자 개성 있는 색으로 표현된 모자의 색상을 그대로 재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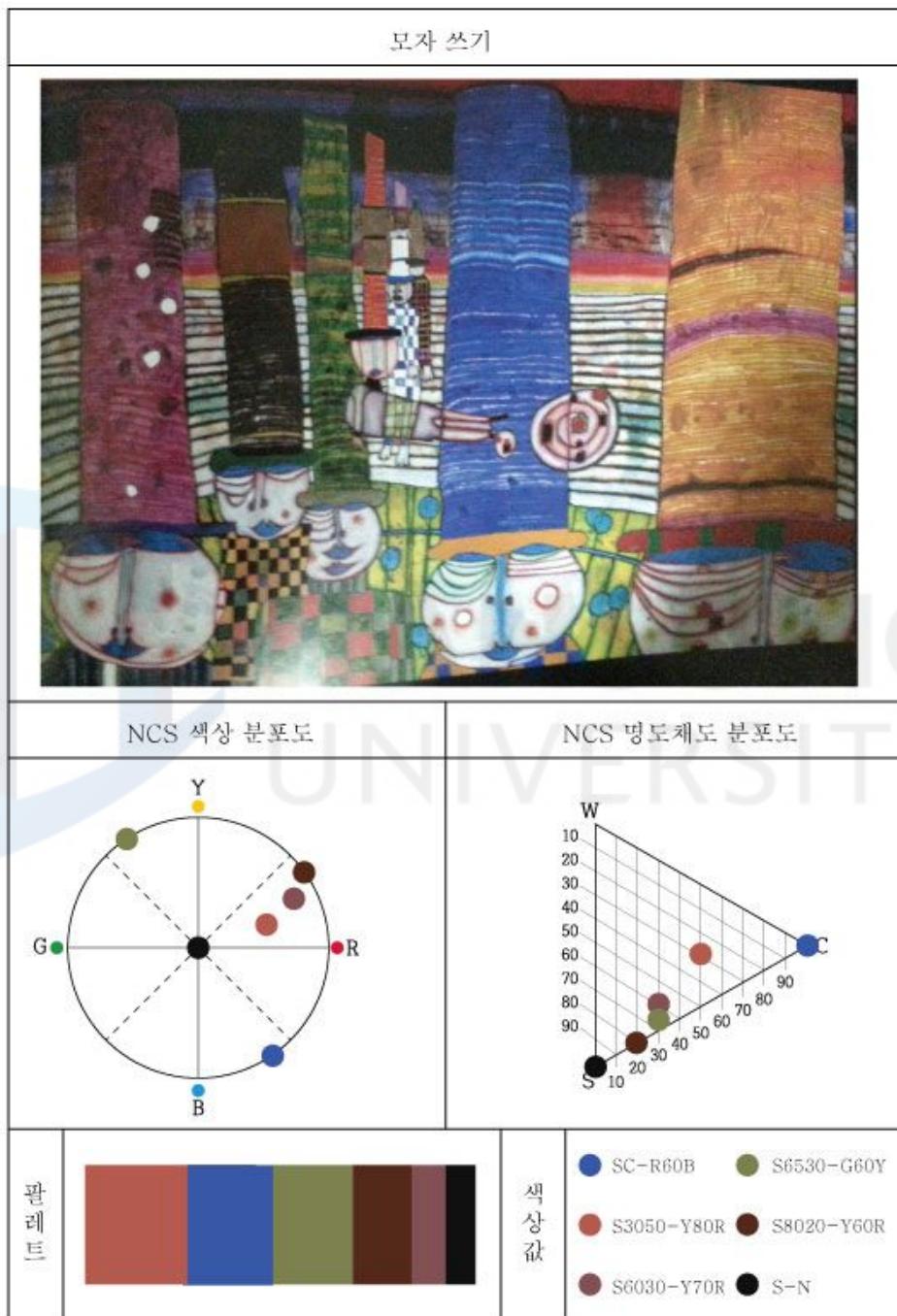
파란모자 위에 있는 나선형 위의 창문무늬를 포인트로 입체적인 3D로 만들어 글루로 접착하여 작품의 재미를 더해보았다.

---

82) 바바라 슈티프, 전계서, p.46.

83) 상계서, p.46.

[표 4-11] 작품⑥ 색채분석



[표 4-12] 작품⑥ 작품제안

모티프	응용모티프	색채제안
작품제작		

## 7. 작품⑦

재 료 : 아크릴릭

기 법 : 2D 아크릴스캡춰, 3D, 엠보

해 설 : 집 안과 위에서 자라는 나무들은 온갖 종류의 화폐와 그 실질적 가치를 내세우지 않고도 산소를 만들고, 주위를 고요하게 하고, 먼지를 삼키고, 기온을 조절하고, 아름다움을 선사함으로써 집세를 지불한다.<sup>84)</sup> 자연이 인간과 공존하며 살고 있는 것은 자연이 묵묵히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며 그런 작품 ⑦의 제목은 <나무 세입자들은 잠들지 않는다–나무 세입자들은 완전히 깨어있다>이고, 1973년에 만든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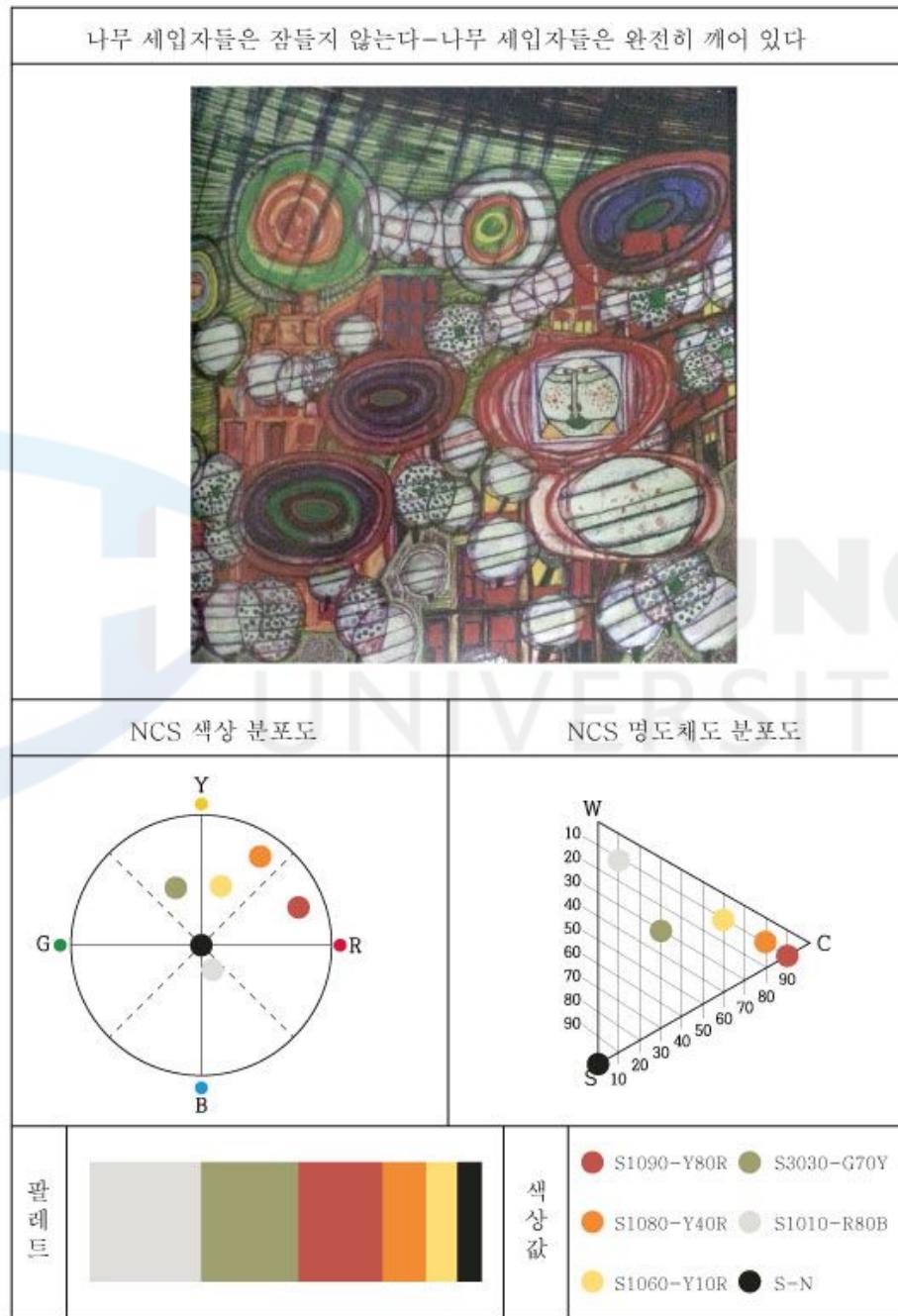
다소 복잡해 보이는 선들의 어지러운 배열이 나선형의 동그라미로 뒤엉켜 있지만 원색적인 색채의 사용으로 생명력이 느껴지는 작품이다.

팁 위에 이 작품을 옮길 때 나무와 인간이 함께 살고 있는 건물을 표현하고, 나무에 많은 포인트를 주고 싶어서 팁 두 개를 기둥이 있는 나무와 팁 하나는 기둥이 없는 나선형의 나무만을 표현하였다. 익살스러운 표정의 사람도 작품의 사람모양을 모티브로 엠보를 주어 강조함으로써 작품에 재미를 더해 보았다. 건물 위에 있는 나무들은 포인트를 주기위해 3D로 제작하였으며, 글루로 접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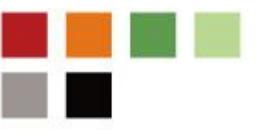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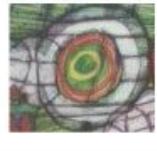
---

84) 피에르 레스타니, 전계서, p.35.

[표 4-13] 작품⑦ 색채분석



[표 4-14] 작품⑦ 작품제안

모티프	응용모티프	색채제안
		
		
		
		
작품제작		
		

## 8. 작품⑧

재료 : 아크릴릭

기법 : 2D 아크릴스캡ച, 3D, 엠보

해설 : 훈데르트바서는 보트를 사서 수리를 하고 모양을 바꾸었다. 바다에 띄울 준비가 다 되자 배에 이름은 붙여주었다. 레젠탁, 즉 ‘비오는 날’이라는 이름이다. “돛은 여러 빛깔을 가질 수 있다. 빨강과 초록 줄무늬, 바둑판무늬, 돛을 바라볼 때마다 난 먼 여행을 생각 한다” 85)

작품 ⑧에서는 훈데르트바서의 회화작품 <부드러운 요트>와 <꿈 꿀 권리> 두 가지를 응용하여 네일 작품을 디자인 해보았다.

왼쪽 작품은 <부드러운 요트>이고, 오른쪽 작품은 <꿈 꿀 권리>이다. 두 가지 작품의 공통점은 요트와 두 사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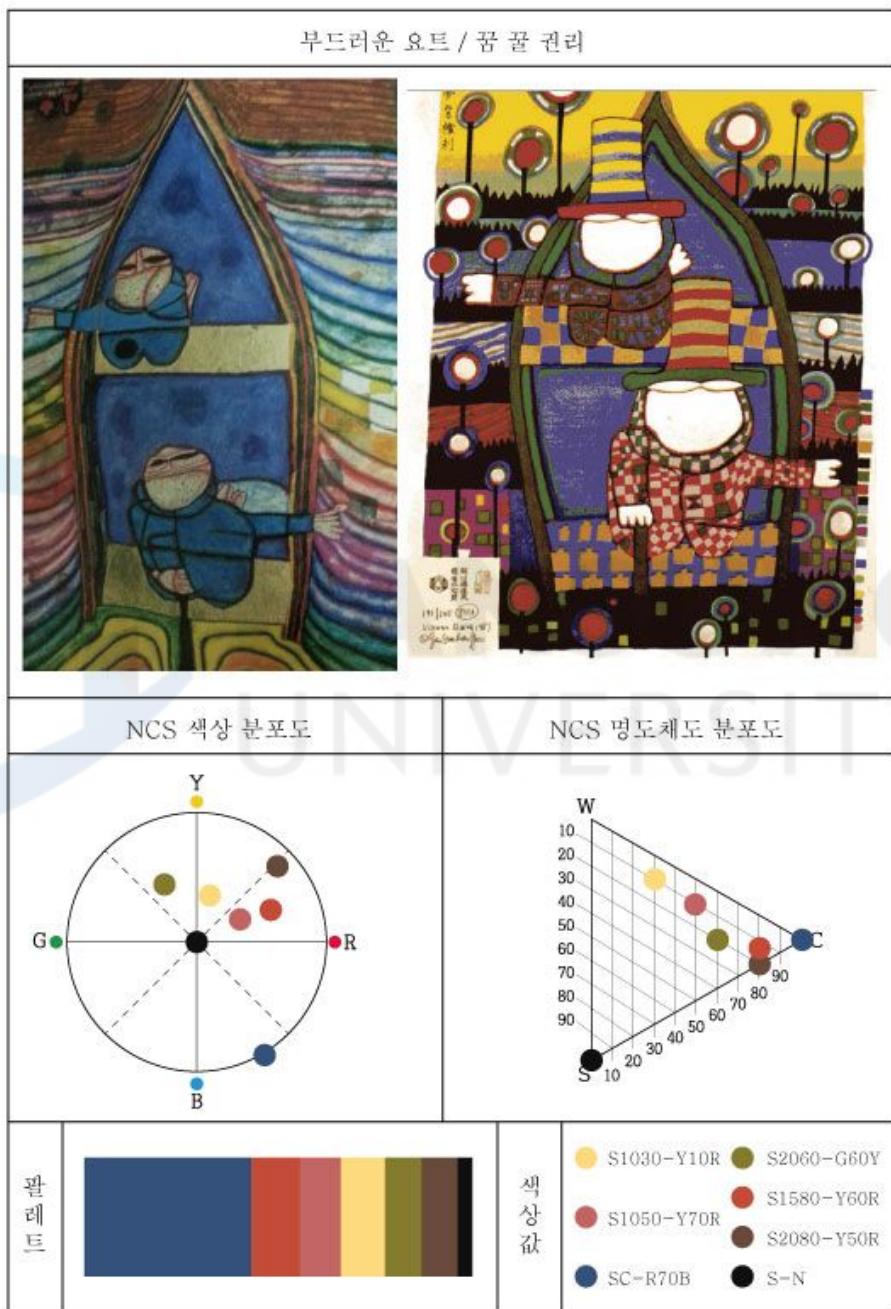
<부드러운 요트>의 알록달록한 무지개색의 물결모양을 기본적인 주제로 디자인하여 컬러파우더로 디자인 스캡ച 하였고, 두 개의 텁을 배 모양으로 만들어 입체적이고 재미있게 표현해 보았다.

<꿈 꿀 권리>에서는 모자를 쓴 사람을 모티브로 얼굴만을 3D로 만들어 배를 디자인 한 텁 위에 글루를 이용해 접착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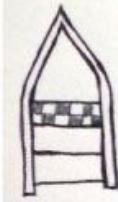
---

85) 바바라 슈티프, 전계서, p.81.

[표 4-15] 작품⑧ 색채분석



[표 4-16] 작품⑧ 작품제안

모티프	응용모티프	색채제안
		
		
		
작품제작		

## 9. 작품⑨

재료 : 아크릴물감, 스톤, 아크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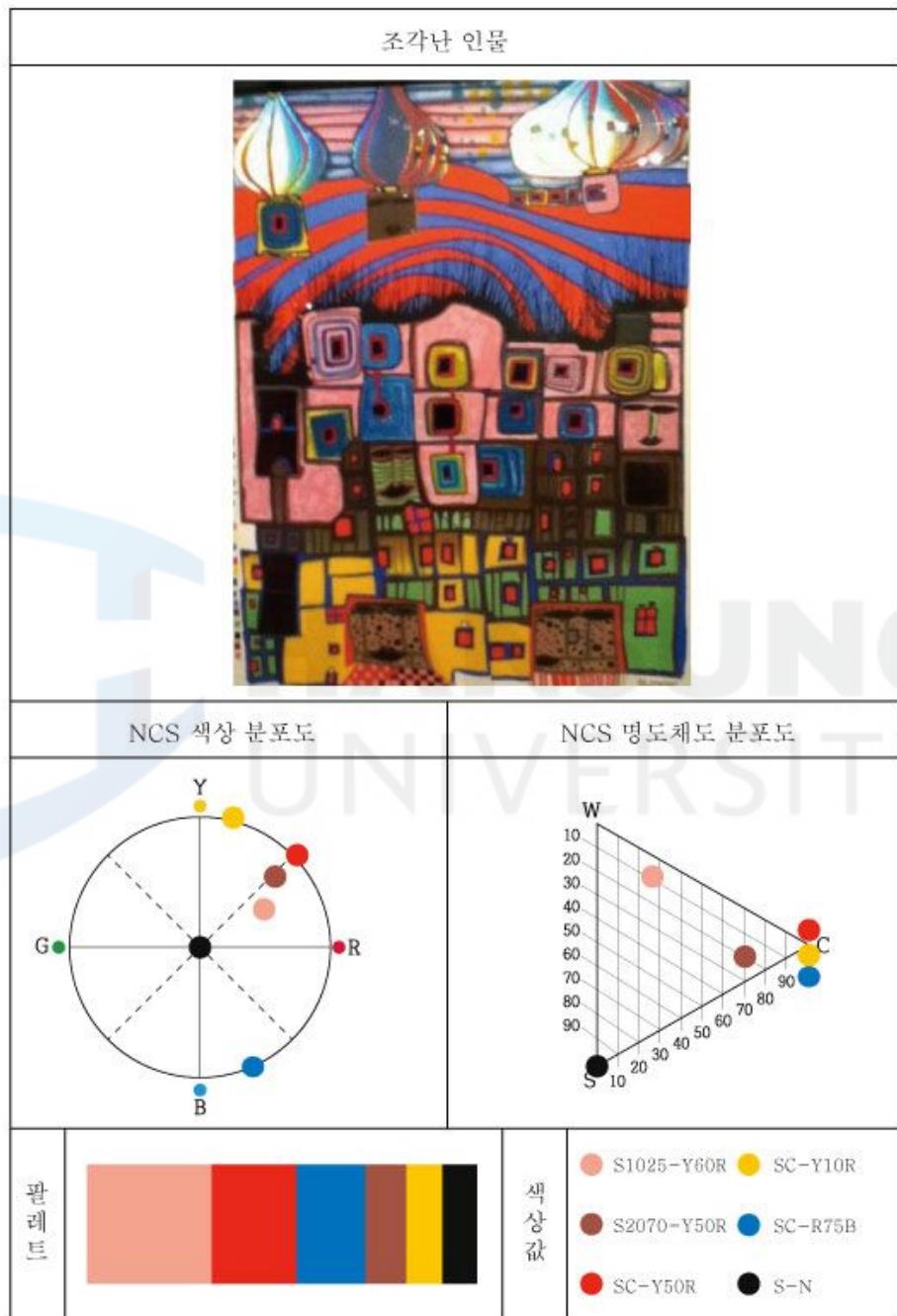
기법 : 핸드페인팅, 스톤아트, 3D

해설 : 여러가지의 색상과 선명한 원색에 블랙으로 나눈 면적은 작품의 화려함을 최상으로 끌어 올렸다. 작품 ⑨의 제목은 <조각난 인물>이다.

분홍과 연두 그리고 노랑 등의 다양한 색채로 사각형이 색 면 분할되어 있고 그 위를 빨강과 파랑 보색의 대비가 물결을 이루며 날아다니는 양파동 형의 기구들이 화려한 색채구성과 함께 동화같은 이미지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먼저 날아다니는 기구들을 포인트로 정하여 흰색 파우더 아크릴 럭으로 모양을 따로 만들어 3D로 작업을 하였다. 그리고 텁 위에 창문무늬와 나선형을 아크릴물감을 이용해 핸드페인팅 기법으로 그렸고, 그 위에 글루를 이용해 여러 색깔과 다양한 크기의 스톤으로 채워 입체감을 살리고 글리터한 색감을 배가시켜 디자인을 마무리하였다.

이 작품의 몽환적이고 화려한 이미지를 나타내기에 스톤의 사용이 적합하였다.

[표 4-17] 작품⑨ 색채분석



[표 4-18] 작품⑨ 작품제안

모티프	응용모티프	색채제안
작품제작		

## 10. 작품⑩

재료 : 아크릴물감, 스톤, 아크릴릭

기법 : 핸드페인팅, 스톤아트, 3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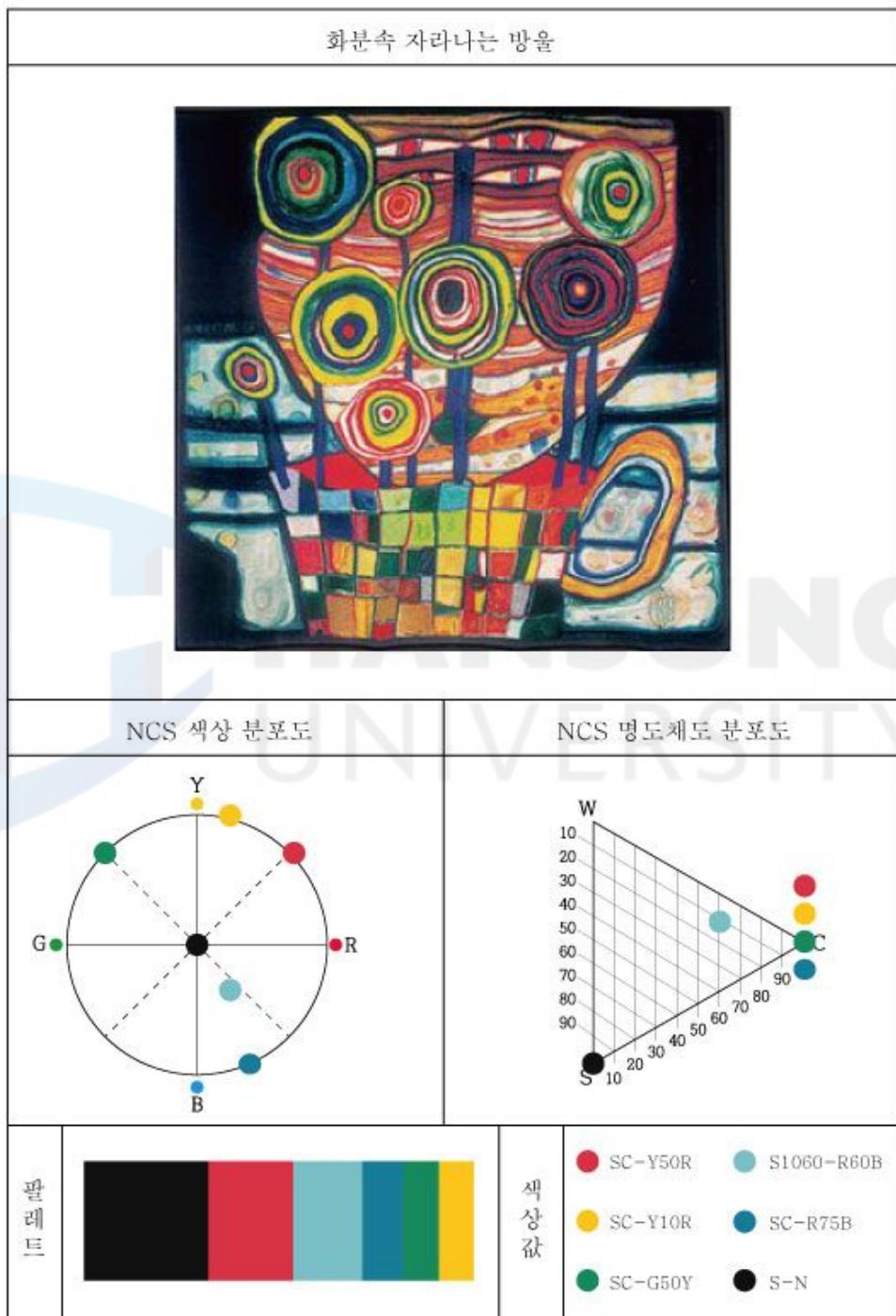
해설 : 작품⑩ <화분 속 자라나는 물방울>은 원색의 조합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나이테의 단면을 보는 듯한 물방울이 컵 모양으로 생긴 화분에 자라고 있는 것 같은 이 작품은 화려한 화분 속의 색채가 더 부각될 수 있도록 배경색이 무채색인 검정이 채색되어 있다.

연구자는 물방울이 자라나는 모양을 포인트로 하여 3D 조형물로 만들어 보았다. 먼저 호일을 이용해 틀을 만들고, 그 위에 화이트 파우더 아크릴릭으로 덮어 놓은 후 아크릴물감을 이용해 핸드페인팅 기법으로 그 위에 색칠하였다.

화분과 물방울을 부피감 있게 앞으로 돌출시켜 평면적인 훈데르트바서의 회화작품에 3D기법을 사용해 입체감을 확실하게 표현해 보았다. 그리고 배경의 사람얼굴과 검정 바탕을 통 텁 다섯 개에 아크릴물감을 이용해 핸드페인팅으로 표현하였다.

검정 바탕의 표현은 스톤으로 장식하여 다양한 소재가 주는 질감의 풍부함으로 무채색이 주는 무거운 색채를 빛 반사를 주어 생동감 있게 마무리하였다.

[표 4-19] 작품⑩ 색채분석



[표 4-20] 작품⑩ 작품제안

모티프	응용모티프	색채제안
		
		
작품제작		
		

## 11. 작품⑪

재료 : 아크릴물감, 스톤, 아크릴릭

기법 : 핸드페인팅, 스톤아트, 3D

해설 : 작품⑪ <노란 집들- 함께하지 않는 사랑을 기다리는 것은 아프다> 원색의 노랑색이 주조색으로 양파모양의 돔 지붕이 인상적인 이 작품은 노란 집 안에 배열된 불규칙적인 많은 창문들에서 단 하나의 창문 안에 그려진 여자의 얼굴이 이기적인 세상살이의 외로움의 단편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노란집이 상징적으로 두드러지는 이 작품의 포인트는 창문 안에 그려져 있는 여자 얼굴일 것이다. 본 연구자도 제안한 네일 작품에서 여자 얼굴을 모티브하여 아크릴 물감을 이용해 핸드페인팅 기법으로 텁 하나에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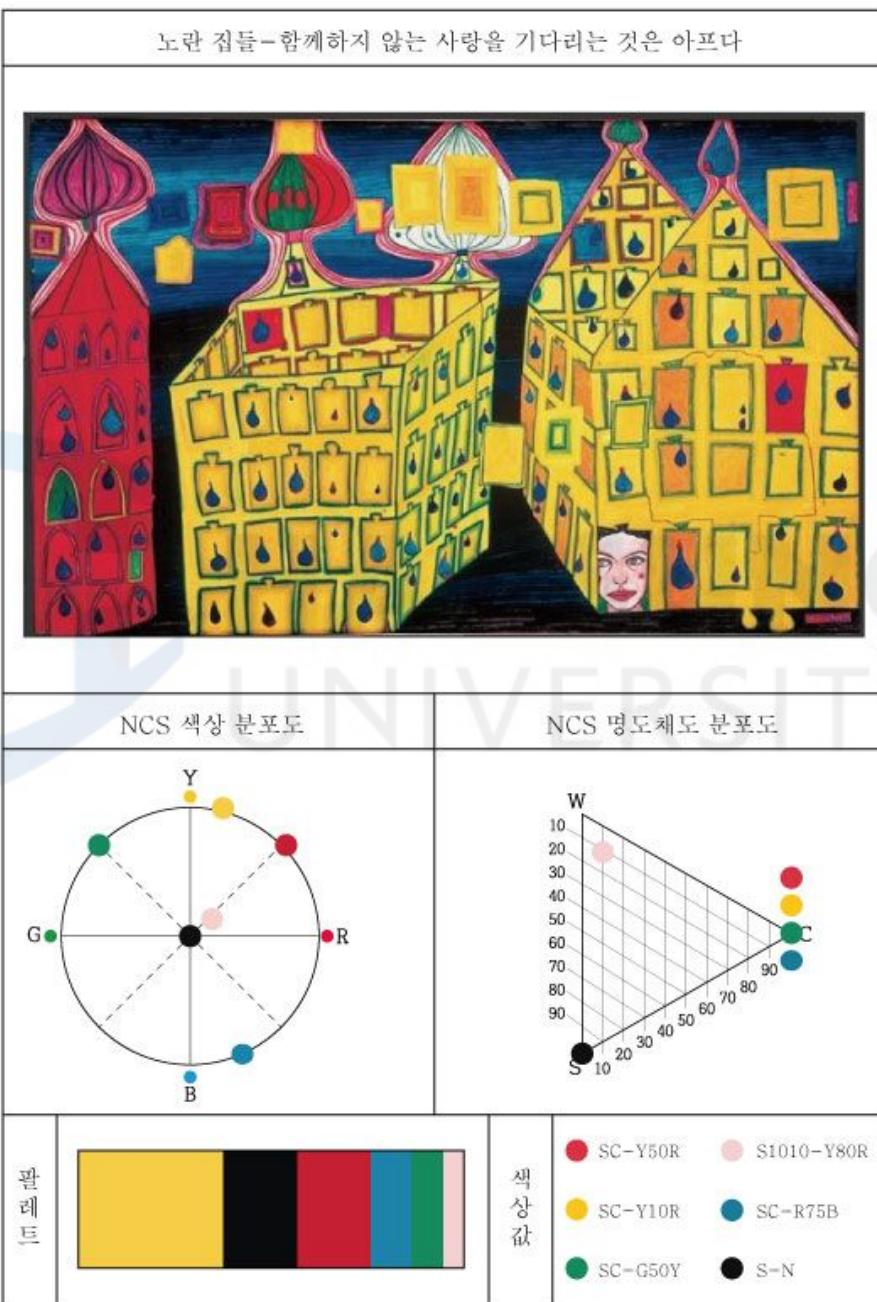
빨간 집 모양은 텁 위에 화이트 파우더 아크릴 릭으로 지붕을 만들어 연결하였고, 집모양이 완성된 텁에 아크릴 물감을 이용해 핸드페인팅 기법으로 그려냈다.

지붕 위의 양파모양의 돔 지붕을 아크릴 릭 기법을 이용해 3D로 만들어 글루로 접착하였다. 그리고 양파모양의 돔 지붕 위에 스톤을 부착하여 상징성을 극대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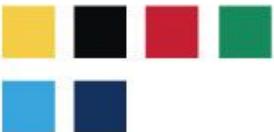
노란색의 육각형 모양의 집을 텁에 호일을 사각으로 감싸 그 위에 화이트파우더 아크릴 릭으로 덮어 입체적인 모양을 만들고 아크릴 물감을 이용해 색을 입혔다.

네일 작품 전체의 이미지를 양파모양의 돔이 상징적으로 보여 질 수 있도록 맨 윗부분에 다양한 컬러의 스톤을 부착하여 완성하였다.

[표 4-21] 작품⑪ 색채분석



[표 4-22] 작품⑪ 작품제안

모티프	옹용모티프	색채제안
		
		
		
		
작품제작		
		

## 12. 작품⑫

재료 : 아크릴물감, 스톤, 아크릴릭

기법 : 핸드페인팅, 스톤아트, 3D

해설 : <부토엽 향기> 다른 말로 하면 똥냄새이다. 이 작품은 화장실의 철학이 담긴 작품으로 1975년 부토 식 화장실에 대한 그의 성명 발표로 유럽에서의 체류가 장기화되었다.

작품의 제목의 이미지와는 다르게 오른쪽 위에 나무들의 형상이 신선함을 느끼게 하는 매력 있는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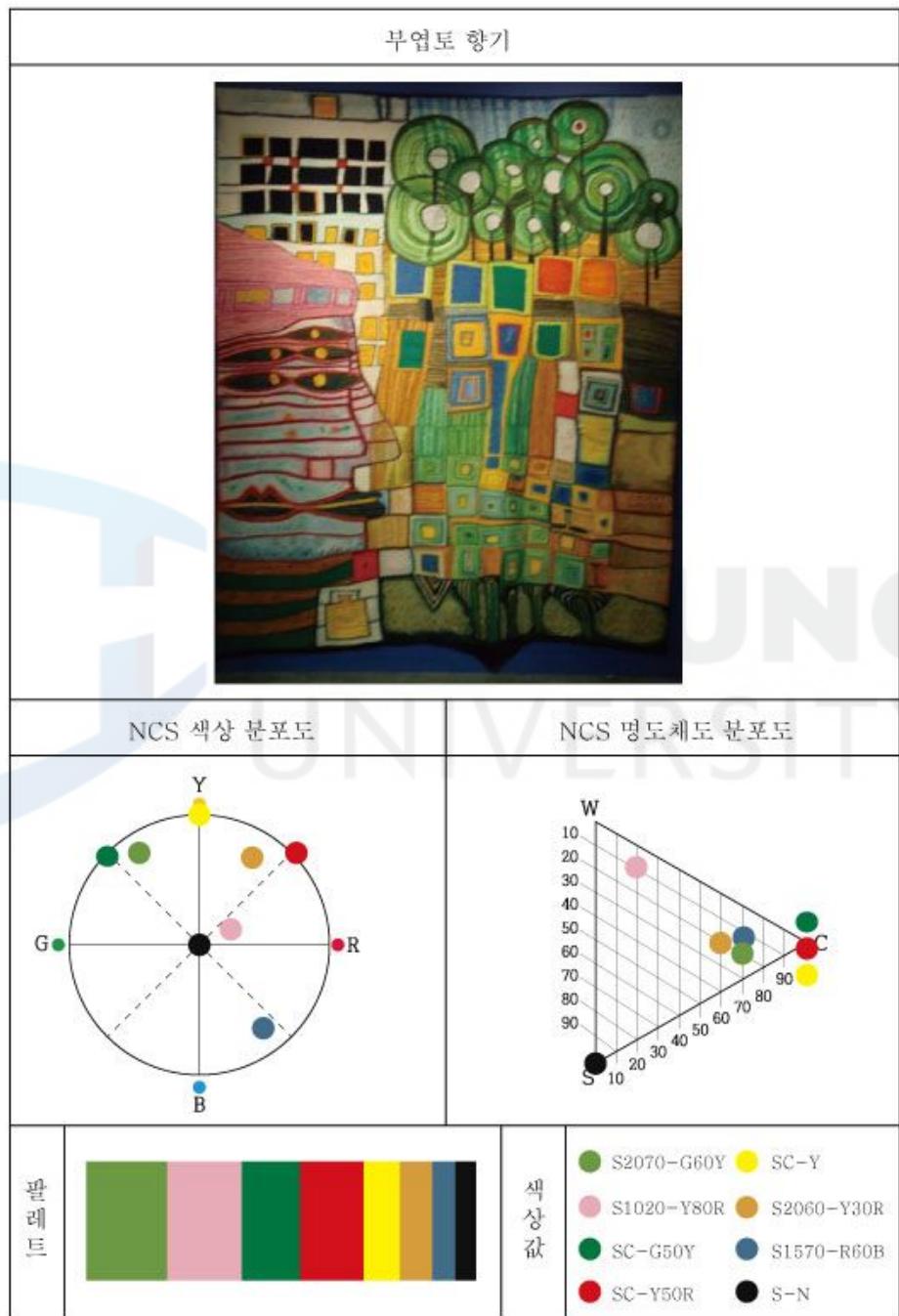
길쭉하게 늘어뜨려 반복 배열되어 있는 네모들은 롱 텁에 디자인하기 적합하여 아크릴 물감을 이용해 핸드페인팅 기법으로 색을 칠하였다.

왼쪽 사람의 옆모습은 입체감을 주기 위해 아크릴 립으로 3D를 제작해 텁 위에 붙여 형상화된 나무들과 함께 전체적인 네일 디자인에 균형미를 더해주었다. 이때 옆모습을 화이트 아크릴로 먼저 만든 후 그 위에 클리어 파우더로 덮으며 얼굴에 표현된 투명감을 만들어 입체감을 살려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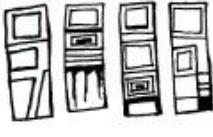
오른쪽 위의 나무들은 화이트 아크릴 파우더로 하나하나 만들어 겹쳐 놓았고, 훈데르트바서 회화작품 속에 표현된 나무 가운데 하얀색의 원모양은 스톤을 부착하여 포인트를 주는 디자인 하였다.

롱팁 윗부분 다섯 개의 사각형에도 베이스와 같은 컬러의 스톤으로 채워서 작품의 완성도를 높였다.

[표 4-23] 작품⑫ 색채분석



[표 4-24] 작품⑫ 작품제안

모티프	응용모티프	색 채 제안
		
		
		
작품제작		

## 제 5 장 결 론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화가이자, 건축가, 자연주의자인 훈데르트바서의 작품 형성 배경과 그의 작품 세계를 연구하고, 나선형과 면의 형태, 화려한 색채 등을 분석하여, 그의 회화 작품을 재해석 해 네일 디자인을 표현하였다.

표현 기법으로는 이 시대 유행하고 있는 젤 네일, 젤 네일 전에 인기를 끌었던 아크릴 스캡춰, 그리고 2~3가지 이상의 재료를 사용하여 디자인을 하는 믹스미디어 기법으로 접근하였다. 훈데르트바서의 회화 작품은 입체적이지 않고 평면적 구성이 특징적인데 이는 젤 네일과 아크릴 스캡춰로 비교적 심플하면서도 자연스러운 형태로 기하학적인 모티브들의 선과 면의 형태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하였다. 여러 표현방법으로 작품을 표현하면서 훈데르트바서 작품은 울퉁 불퉁한 선과 자유롭고 불규칙한 면 분할 등이 매우 자연스러워 일반 사람들이 하기에도 적절한 디자인을 제안할 수 있었고, 시간과 금액에서 작품의 난이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 살롱에서 시술하는데 무리가 없어 보였다. 또한, 훈데르트바서의 회화의 색채는 대체적으로 명도와 채도가 높은 편이지만 동시에 무채색 계열도 존재한다. 그러한 색상 재현을 위해 다양한 채도를 적용하고, 무채색도 사용하였다. 훈데르트바서의 작품에 항상 등장하는 나선형과 사각형의 문양을 주로 응용한 디자인을 적용하여 작품화 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은 첫째, 훈데르트바서의 회화 작품 중 유기적인 나선형과 사각형의 기하학적인 문양들은 '손톱'이라는 작고 평면적인 면적 안에 함축적인 이미지를 연출해야 하는 네일 디자인을 하는데 적합한 모티프임을 알 수 있었다.

둘째, 훈데르트바서 회화 작품의 화려하고 원색적인 색채와 장식적인 문양들을 엠보 기법으로 볼륨감 있게 모티프를 표현하고, 스톤 등 네일 재료를 부착함으로써 네일 디자인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하고 다양한 질감의 디자인 표현을 가능하게 하였다.

셋째, 기계적이고 인위적이지 않은 선으로 표현된 훈데르트바서의 작품은 젤과 아크릴을 잘 다루지 못하는 네일리스트라도,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느낌으

로 큰 부담 없이 그려 내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훈데르트바서의 회화 작품은 대체적으로 높은 채도와 명도를 사용하고, 그 안에 무채색이 함께 공존해 작품의 화려함이 더욱 돋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네일리스트들은 현대의 문화에 맞추어 새로운 감각을 추구하며 네일 디자인의 트랜드를 연구하고 네일아트를 디자인해서 아름다움을 재창조 해야 한다. 개인들의 개성이 돋보이는 네일아트 디자인을 선호하는 요즈음 보편적이고 고정된 틀에서 벗어나 다양한 소재와 기법의 사용으로 기존의 가치관과 전통적인 디자인을 넘어선 여러 가지 표현과 색채의 네일 디자인이 도출되고 있다.

특정한 경계와 가치체계는 서로의 연관성과 공존의 원리를 지니며 기존의 것에서 벗어나 창조적인 의미를 내포함으로써 새로운 가능성은 제시하고 조형 예술적 측면의 네일 디자인에 커다란 변화를 주었다. 뿐만 아니라 시대적 흐름에 따른 미술사조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창작 활동으로 이어져 조형적 예술의 가치를 높이고 있다. 이렇듯 예술양식과 작가들의 창조적인 작품 안에서 네일리스트 본인만의 새로운 아이디어와 표현기법을 개발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본 연구는 색채의 마법사이자 건축 치료사, 환경운동가인 오스트리아가 낳은 세계적인 예술가인 훈데르트바서 회화 작품 속에 표현된 조형적 특성을 선과 면을 중심으로 정리하여 연구하고 NCS를 통한 색채분석 하여, 훈데르트바서의 작품에서 다양하게 응용되어진 형태와 풍부한 재료사용으로 느껴지는 자유로운 질감의 조형성과 천진난만한 아이들과 같은 원색의 화려한 색채와 유희성이 돋보이는 장식적인 문양들을 적용하여 총 12가지 네일 디자인을 제작해 제안 하였다.

이것을 바탕으로 훈데르트바서의 회화를 모티프로 차용하여 예술과 네일 디자인의 접목을 통해 일상적인 삶 속에 예술이 공존하게 하고 네일 디자인이 조형적 예술로써 그 가치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네일 디자인이 풍부한 색채와 다양한 소재들과 기법으로 결합하여 새롭게 재창조되어 네일 디자인 분야의 발전과 패션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보탬이 되

었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예술작품의 조형분석과 색채분석을 통한 선행연구가 앞으로 좀 더 개성 있고 다양한 네일 디자인에 활용되어지길 바라며, 이러한 연구를 통해 예술작품이 네일디자인에 현대적인 감각으로 새롭게 재구성되어 독특한 조형미를 연출 할 수 있음으로 꾸준한 개발과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 【참고문헌】

### 1. 국내문헌

- 김동연, 김효영, 노지운, 이소녕, 임희아, 장형화(2006), 『Beauty stylist Nail art book』, 서울 : 삼성북스
- 김영미, 서동균, 박지영(1999), 『NAIL TECHNOLOGY』, 서울 : 고문사
- 문은배(2011), 『색채 디자인 교과서』, 서울 : 안그라픽스
- 바바라 슈티프, (2010), 『꿈꾸는 나선의 예술가 행복한 훈데르트바서』, 김경연 옮김, 서울 : 현암사
- 유숙희, 김영옥, 김희정(2009), 『네일케어실무』, 서울 : 현문사
- 이영순, 한영숙, 김은실(2000), 『네일관리학』, 서울 : 고문사
- 이은경, 이애순, 박선희, 황선순, 박규미, 김남희, 명은진 (2007), 『Professional 네일아트』, 서울 : 광문각
- 장석임, 장경자, 박미경(2003), 『네일리스트를 위한 네일아트』, 서울 : 정문각
- 홍지은, 김진이, 우미옥, 김효정, 이진용, 김문주(2004), 『네일테크닉』, 서울 : 훈민사
- 피에르 레스타니(2010), 『훈데르트바서: 다섯 개의 피부를 지닌 화가왕』, 박누리 옮김, 서울 : 마로니에북스

### 2. 국외문헌

- Anne Sauvadet, & Harry, Rand(2003), 『Hundertwasser』, Koln : TASCHEN
- Berns, Roy(2003), 『Principles of Color Technology』, Paris : Sigmapress.
- Francoir, Mathey(1991), 『HUNDERTWASSER』, Paris : Flammarion
- Grbert, Frodl(1992), 『Gustav Klimt』, Salzburg : Verlag Gallrie Welz,

Harry, Rand(1993), 『Hundertwasser』, Koln : TASCHEN

Restany, Pierre(2003), 『Hundertwasser』, Koln : TASCHEN

### 3. 학위논문

국승채(2013), 「TV홈쇼핑의 상품유형 별 쇼 호스트의 스타일링과 배경화면 색채이미지와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손정아(2013), 「한국·중국·일본의 메니큐어 문화적 관습의 유사성과 차별성 분석을 통한 네일 디자인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송명숙(2011), 「Hundertwasser의 5겹 피부이론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Hundertwasser's Five Skins Theort」,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윤미선(2009), 「매니큐어 文化類型에 따른 治療와 表現技法에 관한研究」,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수진(2011), 「UV Gel을 이용한 네일아트 작품에 관한 연구」, 영산대학교 미용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선아(2004), 「한국 차(茶)문화공간의 감성적 색채 전략에 관한 연구 : 고유 브랜드 Cha&Gallery 색채계획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희경(2012), 「아크릴릭 네일아트 기법을 이용한 손의 상징성에 관한 연구」, 영산대학교 미용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애희(2012), 「훈데르트바서(Hundertwasser)의 회화 작품을 응용한 니트웨어 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환아(1998), 「훈데르트바서의 미술세계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주란(2003), 「여대생의 얼굴 화장과 손톱 화장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원격향장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순복(1993), 「구스타프 클림트의 회화세계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4. 학술지

정유진, 김홍섭(2011), 「훈데르트바씨의 작품세계와 특성에 관한연구: 회화  
작품의 건축구현을 중심으로」,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  
20권 6호 통권 89호, pp.97–104.

Trang Nguyen(2012), Trang Nguyen 칼럼, 『뷰티신문 수』, 제133호,  
p.42.

최지나(2000), 「꽃 이미지의 아트 메이크업」, 『한국인체예술학회지』, 제1  
권, pp.143~160.

#### 5. 인터넷 자료

<http://www.newswire.co.kr/newsRead.php?no=651572>

<http://terms.naver.com/entry.nhn?cid=200000000&docId=1355475&mobile&categoryId=200000905>

<http://100.naver.com/100.nhn?docid=104402>

<http://100.naver.com/100.nhn?docid=831131>

## ABSTRACT

### A Study on Nail Designs Based on the Design Characteristics Expressed in Hundertwasser

Cho, Sun A

Major in Beauty Color Design

Dept. of Beauty Art & Design

Graduate School of Arts

Hansung University

Nail art has gained its popularity through the years and is now leading the beauty trends while gradually expanding its market. Manicure has been used as a tool to express individual personality; however, as time passes, it has created a trend and developed a distinctive design that has transformed the behavior from simply 'receiving a treatment' to an 'act of enjoying the nail art' as a culture. Manicure in the past years was generally used in receiving hand treatment and getting polished, but in the recent years along with advanced materials and increased use of it, manicure has become a part of everyday-life for women of the 21st century who constantly desires to be more beautiful and glamorous. In addition, since the nail art is about building beauty, designs are considered most important alongside with technological services

Nowadays, primary colors and neon colors are mainly used in fashion industry as these colors represent the trend in 2013; therefore it seems appropriate to suggest nail art designs based on Hundertwasser's paintings that harmoniously use fancy primary colors along with achromatic colors to maximize practicality of nail art design while meeting new demands of this new age.

In this study, the development and art works of Hundertwasser's paintings, as well as formative characteristics based on lines and sides have been analyzed through literary research, and the colors used in Hundertwasser's paintings have been examined from visual aspect while applying color-system.

Moreover, fancy and strong color usage along with various patterns, materials, and techniques in Hundertwasser's paintings have been analyzed to select appropriate nail art materials while studying theoretical concepts of nail art design and expressive techniques. Twelve nail art works have been created based on theoretical analysis using UV gel, acrylic, and mix-media as selected materials. Twelve nail art works have been created with motives from decorative lines and shapes of Hundertwasser's paintings. The composition of the works is as follows: Four nail art works created with UV gel, four art works made of acrylic, and four works formed out of mix-media. These works have been completed with reference to Hundertwasser's fancy primary color images and using organic and geometrical beauty of the paintings.

As a result, the researcher has discovered that helical forms and geometric patterns are suitable for nail design; thus, various nail art designs have been created using embroidery techniques, stones, and other nail art materials while applying fancy colors and decorative patterns from Hundertwasser's paintings

Moreover, it seems reasonable for the nail artists, even those who

are not used to handling gel and acrylic, to draw non-artificial and mechanical patterns and lines that are expressed in Hundertwasser's works. Although Hundertwasser's paintings generally use fancy and primary colors, the researcher has discovered that highly bright and low colors as well as highly saturated and low chromatic colors were distributed evenly in the paintings. It was also evident that achromatic grey and dark black colors were used to maximize the beauty of the paintings while saturated colors stood out in the artworks.

This research studies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Hundertwasser's artworks through NCS color analysis, and while applying its glamorous colors and decorative patterns, twelve nail art designs have been suggested. Based on this study, the researcher attempts to maximize artistic practicality of nail art, and also makes an effort to study and apply "color" with intention and purpose to further devote to the developments of nail art design in the contemporary era where attractive colors and techniques are demanded.

**【Key words】** Hundertwasser, NCS Colorimetry, Nail polish, UV gel, Acrylic, Mix-media